마태복음 1

1-15

마태복음 1

2026년 10월 22일 초판 발행

펴낸이 **강요섭 김광욱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교정 **전예슬**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새벽묵상

마태복음 1

1-15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교회

100주년기념교회
새벽묵상

마태복음 1

1-15

차례

마태복음 1:1-25
마태복음 2:1-23
마태복음 3:1-17
마태복음 4:1-11
마태복음 4:12-25
마태복음 5:1-12
마태복음 5:13-20
마태복음 5:21-32
마태복음 5:33-48
마태복음 6:1-18
마태복음 6:19-34
마태복음 7:1-12
마태복음 7:13-29
마태복음 8:1-17
마태복음 8:18-34
마태복음 9:1-17
마태복음 9:18-38
마태복음 10:1-23
마태복음 10:24-42
마태복음 11:1-19
마태복음 11:20-30
마태복음 12:1-21
마태복음 12:22-37
마태복음 12:38-50
마태복음 13:1-23
마태복음 13: 24-43
마태복음 13:44-58
마태복음 14:1-21
마태복음 14:22-36
마태복음 15:1-20
마태복음 15:21-39

묵상한 날 : . . .

1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1-25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
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
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
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
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
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
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
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
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
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
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구약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전직 세리였고, 열두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1-17절은 예수님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1-17)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계보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유용한 소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계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조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보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계보에는 몇몇 여성들이 등장하는 데 이 사실이 오늘날에는 낯설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의 계보에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헬라와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에게 법적인 권리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은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네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간 여인들은 순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으며 일반적인 삶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고(창 38장), 라합은 기생이었으며(히 11:31), 룻은 이방여인이었고(룻 4장), 우리야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하였습니다(삼하 11-12장). 그러나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깊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계보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을 올

리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들이 올라간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남녀의 장벽이 무너졌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방인들을 계보에 등장함으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분도, 성별도,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1)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계보 중에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다윗의 계보와 왕국의 멸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사 11:1) 말씀하셨고,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삼하 7:16)을 잊지 않으시

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감흥 없이 보던 계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18-25)

18-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르십니까?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면 치욕스러운 상황과

율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19절). 그러나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합니다.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경에서 꿈은 종종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였고,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즉 다윗 왕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어 언약의 성취를 더욱 구체화하는 말씀을 증언합니다.

(21-23)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사야 7:1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약의 성취임을 정

확히 명시하였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행동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24-25)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였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며 자기 절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에서 자기 절제를 통해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장은 단순히 사람들의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위대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으며 우리는 그저 그 사

랑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분도, 성별도, 죄가 가득할지라도 막을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수님의 계보에 여성들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다윗 왕조가 무너졌지만 예수님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묵상해 봅시다.

3.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까?

4.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묵상해보고 실천합시다.

묵상한 날 : . . .

2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1-23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
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
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
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
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
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
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
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
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
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
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

기 있으라 하시니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7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19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동방박사의 경배(1-12)

신약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중에 첫 책인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1:1)' 인데,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

에는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왕의 말은 곧 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이 다른 성경보다 많습니다. 5-7장은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을 모았다고 하여 '산상수훈'이라 하고, 13장은 비유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모았다고 하여 '천국 비유장'이라 합니다. 그리고 24-25장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모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상황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과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12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찾아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 때에 있었던 소동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왕'은 '헤롯대왕' 또는 '헤롯1세'로 불리는데, 그는 B.C. 73년경에 태어나 B.C. 40-37년경에 로마제국의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B.C. 4년경까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에돔의 후손으로 이두매(유대 남쪽, 에돔 땅)에서 온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했습니다. 그는 도시를 건설하고 농업을 장려하기도 했

고, 해상 무역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치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잡은 권력에 대해 집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해서 죽이고, 다른 두 아들도 그가 죽기 4일 전에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모와 자기 부인 마리암네까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 W. 바클레이에 의하면 헤롯대왕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곳인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해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함께 처형하라". 그 이유는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들도 함께 죽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라는 때문이었습니다. 헤롯대왕이 이렇게 왕위에 집착하는 인물인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2-3)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질문에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동하다'는 지축이 뒤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사

실이면 한 나라에 왕이 2명이 되는 셈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로 왔습니다. 그들이 바빌로니아에서 왔다면, 약 1,500km나 되는 길을 왔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탄생할 것이니, 당연하게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허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결정적인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능력 등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에 헤롯대왕은 성경에 관한 한 전문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5-6)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책으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었고, 1권으로 되어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 5: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여, 그

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고, 잘 알았을지라도, 그들은 탄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만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은 물론 삶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7-8)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대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별의 주인공 탄생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배하다(프로스퀴네오)'는 '엎드려 절하다', '예배하다'입니다. 하지만 헤롯대왕의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동이 있고 난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의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9-10)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으로 놓쳐버린, 어쩌면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별은 본래의 목적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11-12)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로 왕직을 상징하는 황금과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유향, 그리고 선지자직과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1,500km나 되는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었고,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13-18)

13-18절은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과 헤롯대왕이 유아들을 학살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3)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처음에 '보라(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환기시켜 줍니다. 1장에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인한 것임을 요셉에게 알려주었던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헤롯의 학살이 있을 것이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4-15)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은 '밤에'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그 먼 길을 정처 없이 떠났습니다.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왕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로 갔던 가룟 유다에게 밤은 불순종의 시간, 범죄의 시간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순종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대왕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찾거든 자신도 가서 경배하게 해 달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알려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대왕은 얼굴빛이 붉으락푸르락 했습니다. 자신의 왕위 유지를 위해서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 무슨 짓인들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게 했습니다.

(17-18)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마에서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렘 40:1). 당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어머니들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라헬은 처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요셉을 낳은 후에 베냐민을 낳고는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이를 안아 보지도 못하게, 자기 젖이 아니라 젖동냥으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어머니들의 마음과 대비하고, 그것

이 구약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사렛으로(19-23)

19-23절은 예수님께서 언제 애굽에서 되돌아왔는지와 왜 나사렛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9-21)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그대로 순종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요셉은 자기 이름으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신 일이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고, '그 부모'라고만 나옵니다. 요셉의 믿음과 헌신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호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2-23)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헤롯대왕은 이내 죽고, 그의 세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에 의해서 유대는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지방에서 살지 못하고,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약성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잘못 찾아가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는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돌아갈 때도,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헤롯대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걷기에 그 길은 다른 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4번 나옵

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길을 걷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미가 5장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경배해야 하며,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헤롯대왕과 같이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 청지기의 자세를 갖게 해 주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으려는 완악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각자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헤롯대왕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께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왕위를 비롯한 자신의 것에 집착이 극에 달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주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2.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꿈을 통해서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다른 길'은 무엇이 있습니까?

3. 예수님과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다시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은 고달팠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드러난 일이 있다면 기록해 보십시오.

4. 다른 길을 걸어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3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마태복음 3:1-17

1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4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5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6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1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3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1-12)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지내신 이야기로 2장이 끝남과 동시에, 3장에서 시간은 30여 년이 훌쩍 지나게 됩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러하듯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기 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후 갑작스러운 세월의 경과 후에 들려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적잖이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1-2)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선지자를 만난 경험이 없기에 당시 어느 누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와 행동에 합당한 반응을 할 만한 사

람들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 그 메시지와 함께 베푸는 세례, 당시 사람들의 동요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마태는 충격에 빠진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미 구약성경(이사야 40:3)에 예언된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3-4)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옷차림은 엘리야의 옷차림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8)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옷차림을 취함으로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6절입니다.

(5-6)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며 회개해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급박한 메시지, 당시 호화스럽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초라한 옷차림, 왕궁이나 번화가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에게 집중하게 하는 그의 행보는 하늘에서만 존재하던 천국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올 나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묘사되는 새로운 나라를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는 언제나 새로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가나안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모세, 다윗 등 성경의 인물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 이후 훈련의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장소입니다. 마카비 가문으로 대표되는 유대 독립운동의 흔적이 있는 곳이기에 민족의 정서가 담겨있고,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이들이 세상과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 가던 영적인 기점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된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리 높여 찬양하던 장소였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이들에게 세례가 행해집니다. 본문 5-6절입니다.

(5-6)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상 세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세례는 이방인들이 행했던 의식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은 3가지의 입교식을 거쳐야 했는데, 목욕, 할례,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 중에 목욕은 이방인들이 더러움을 씻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큰 욕탕에 들어가 씻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다시 태어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 예식은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넘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없습니다. 본문 7-9절입니다.

(7-9)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인종적, 종교적 배경에 기대어 그릇된 안정감과 기득권으로 아무런 열매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천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2절입니다.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의 열매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3:10-14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13-17)

13절부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과 반응이었으며, 자신의 물세례보다 예수님의 성령세례가 본질적으로 더 상위급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앞으로 찾아올 나라에 대한 소리일 뿐이지만 주님은 그 나라의 주인이셨기에 종된 자신이 주인 된 예수님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세례를 하나님의 의라 여기며 받으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요한에게는 지금까지 천국을 위한 준비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하셨고, 자신에게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출발하는 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건이 되었으며, 예수님은 메시아이며 고난받는 종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16-17절입니다.

(16-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어서 들려진 하늘의 음성은 시편과 이사야에서 언급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나타냅니다.

(시 2:7)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 42:1)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겸손해지셨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첫걸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시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신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왕이요 용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 주님은 죄에서 구속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로써 이 시대와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나에게 조명되는 모든 시선을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께로 향하도록 겸손해야 하며,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헛된 욕망, 거짓, 추악한 탐욕의 시대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허무한 세상의 나라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이 득실대는 세상에서 참 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영원성 안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나의 자존심, 생각, 경험을 누르고 겸손히 순종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욕망이라는 바람을 맞으며, 거짓이라는 배를 타고, 허무라는 바다를 건너는 것이 인생인듯합니다. 삶의 족적이 죄인의 길이었지만,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맺음을 이룰 때까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인 되시는 주님만 가리키며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동안 나타나지 않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재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나는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 묵상해봅시다.

2.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새로운 시작이요 출발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나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3.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며,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봅시다.

묵상한 날 : . . .

4 시험을 받으러

마태복음 4:1-11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
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
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
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
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
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
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
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
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어(1)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 천국 전파의 시작,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심, 그리고 가르치는 사역과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때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어느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마귀가 감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 시험을 할 수 있느냐 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마귀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약 시대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욕심으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

험을 통과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금식하신 후에(2-4)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한 끼도 드시지 않으시고 하루 종일 금식을 40일 동안 지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리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배가 고프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상에 죽음 역시 헛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동일한 고통이었습니다.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는 곧 마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시험에 빠트리려고 건넨 첫 번째 말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입니다. 마귀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유혹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주리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불가피하게 금식해야 할 때에 금식시간이 길어질수록 먹고 싶은 음식들이 떠오릅니다.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앞에 갖다 두고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악인들이나 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리신 예수님께서 혼미해서 순간적으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떡이 주린 육체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언정 떡으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한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5-7)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첫 번째 유혹 전술을 펼쳤지만 실패하였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에 빠트리려고 했던 두 번째 유혹 전술은 상대의 강점을 이용하여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6)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전능하신 너의 아버지께서 천사에게 명하여 손으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91편 11,12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며, 복음 전도자가 아니며, 의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단들이나 삯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교묘히 이용해서 선한 자처럼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도의 약점을 건드려 그를 넘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장점을 부추겨 교만에 빠트려 그를 넘어뜨리려고도 합니다. 우리의 강함이나 약함으로 교만하

거나 열등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악인들의 꾀에 대응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구약성경을 인용하며 시험에 빠트리려고 했던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꾀를 물리쳤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 입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엇을 해 보라’는 식의 꾀로 시험에 빠트리려고 하는 악인들이 접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악인들의 꾀에 의해 그 일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우리에게 감언이설로 꾀를 부릴 때라도 항상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8-10)

(8-9)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두 번의 꾀에도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상에서는 시야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빌딩이나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넓고 먼 곳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이가 높을수록 더 큰 세계가 보입니다.

세 번째 마귀의 전술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부와 권력을 미끼로 자신에게 경배를 요구하였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마귀를 경배한다면 상상을 초월한 부와 권력이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세계 최고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것을 섬긴다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천하만국은 아니더라도 개인마다 부와 권력의 허황된 기대치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다.' '이 정도 재산까지 모으고 싶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된다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귀의 시험에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와 같은 악인들이 어리석은 질문이나 꾀로 시험할 때에, 지혜로운 답을 통해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나아와서(11)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다양한 꾀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넘어가지 않자 더 이상 예수님 곁에 있을 이유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가 떠나자 천사들이 나아와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다양한 유혹을 이긴다면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합니다.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시험을 잘 치른 사람에게 내리는 복입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

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신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의 이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숙고하는 묵상을 하십시오. 오늘도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저희의 본이 되어 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뱀처럼 사람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귀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넘어오라고 끊임없이 유혹할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마귀의 변형체인 악인들이 부와 권력과 명예로 유혹할 때에나 저희의 약점과 강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 행함으로 이어지는 묵상의 생활화,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만약에 마귀가 나의 약점을 자극해서 시험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만약에 마귀가 나의 장점이나 능력을 부추겨 시험한다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마귀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줄 것이라는 허상을 꿈꾸게 하여 사람을 유혹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가 목적(섬김의 대상)이든 이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신앙공동체가 시험을 잘 이겨낸 후 천사의 수종을 받는 것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5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 4:12-25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8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천국을 전파하시다(12-17)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써 그리스도(메시아)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으심과 시험받으심은 오늘 본문과는 약 1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2-17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일을 시작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례자 요한의 체포가 된 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남쪽 유대 지역에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요 1:29; 4:42). 하지만 분봉왕 헤롯(2세, 안티파스)이 그의 이복동생 헤롯 빌립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두고, 결국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자,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투옥시켰습니다. 그 일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셨습니다.

(13)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말씀은 12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의 부연설명입니다.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나훔의 마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나훔의 마을'이라고 번역한다면, 선지자 나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마을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생긴 곳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호반 도시였는데, 당시 꽤 번창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꽤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4-16)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

함이라고 증거합니다. 2장에서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과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될 것 등이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메시아)가 틀림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5-16절은 이사야 9:1-2의 말씀이 성취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Pekah)왕이 다스릴 때에 아시리아 제국의 왕 디글랏빌레셀(Tiglath PileserⅢ)이 갈릴리 지방을 쳐들어와서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자유를 찾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그 말씀을 더 확장하여 당시 죄악과 불신의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영적인 광명이 비취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동의어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은 젖(우유)을 생산하는 소와 양이 잘 자랄 수 있는 풍부한 목초지가 있고, 꿀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화초가 많이 자라나서 살기가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면, 순서가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에서 갈릴리 호수가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은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인 의미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산과 들에 초목이 점점 푸르러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주변은 정말 비옥합니다. 북쪽 비옥한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이스라엘 전체가 먹고도 남습니다. 당연하게 일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경치도 정말 좋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이방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전부 흑암에 앉은 인생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인생입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인생을 살아도 그러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덧입으면 깨닫게 됩니다. 지난 삶이 얼마나 어두움이었는지, 또 얼마나 사망의 냄새가 진동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세례자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요한이 외친 것이 "천국(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분이 온다"는 의미였다면, 예수님의 외침은 "그 천국의 실체가 바로 나다"와 같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던 것에서 주인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라'의 의미라고 한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천국(하나님의 나라)'을 사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일터도 동일합니다.

어부들을 부르시다(18-22)

18-22절은 제자들을 사람의 어부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18-20)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형제의 첫 만남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형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어서 만났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로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형제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는 것(낚시)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셨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것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 잡는 것이지만, 사람을 낚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집에 거대한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번역했지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사람의 어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려주시는 주님께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뒤따랐습니다. 그 그물은 단순히 그물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계 수단이었고, 이전의 삶의 방식이었고, 지난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름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1-22)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뒤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보다는 훨씬 부유하였습니다. '배'가 그들의 소유였다면, '아버지'는 그들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고, 그 어떤 관계보다도 먼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주님은 영원한 가치로 승화시켜주셨습니다.

가르침·전파하심·고치심(23-25)

23-25절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3개의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입니다. '가르치심(teaching)', '전파하심(proclaiming)', '고치심(healing)'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인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24-25)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지방뿐만 아니라 남쪽 유대 지방, 심지어 수리아(시리아)까지 퍼져서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의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었고,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이었으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삶에 빛은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사람의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고, 제자다운 제자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므로, 주님의 빛 속에 살아가며,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연결해 주는 통로로 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처럼,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던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비추어 주는 빛 속에 있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올바른 방향과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가정에서, 머물게 하신 일터에서, 살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은 '흑암의 자리'와 '사망의 땅과 그늘'에서 어떻게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빛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 예수님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언제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의 삶에서 좀 더 제자다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받은 것과 복음을 받은 것, 치유하심을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4. 당신이 빛의 자녀로 살고, 제자다운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6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1-12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며 본격적으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

며 고치시는 3중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남쪽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나섰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는 5개의 중요한 강화, 즉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산상수훈,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선교 강화, 13장의 여러 비유가 등장하는 천국 강화, 18장의 교회에 대한 강화, 마지막으로 23장의 화와 저주에 대한 강화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다섯 가지 강화를 모세오경과 대조하여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세오경과도 유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긴 내용 중에 처음 등장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덟 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과 제시는 예수 제자의 특징이면서, 조건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서론(1-2)

1, 2절은 산상수훈 즉 마태복음 5-7장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의 주된 관심사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섯 번의 주요 강화 현장에 함께 있었고, 다른 많은 사역 현장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3년간의 공생애 사역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과업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의 주 내용 역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들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살기 원하고 힘쓰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제자를 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은 이어서 나오는 여덟 가지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사랑하며 지키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

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 주십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의 가난입니다.

천국시민의 여덟 가지 특징(3-12)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결핍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포함하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의미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보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마음 상태가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 갑작스런 사고를 당할 때,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뜻하던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할 때 역시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러한 어려움, 눈물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절망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만지

심과 회복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됩니다.

천국 시민,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은 애통하는 것입니다.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애통하다'는 슬퍼하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강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겪는 극심한 비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울며 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천국 시민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천국 시민의 세 번째 특징은 온유함입니다.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는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빼고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력과 지위 아래 있는 사람에게 그 힘이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힘을 빼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학자들은 주로 이 땅을 영적인

의미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약한 자, 작은 자,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과연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입니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신약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 '디카이오수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법적인 용어로, 또 정의로움의 의미로, 바울 서신에서는 주로 관계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전반적으로 '의'의 개념이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과거의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서는 안 되고,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고 보다 근원적으로 지켜 행해야 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그 교훈이 많이 등장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고, 기도를 해도 중심으로 해야 하고, 금식도 헌금도 그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예배

를 드려도 온 마음과 중심으로 드려야 하고, 모든 종교 행위와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율법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행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의에 대해 주리고 목마름이 있어야 영적인 부요함이 넘치는 구원, 즉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영적 목마름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이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도 또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함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 역시 우리 주님의 성품이며, 제자들이 닮아가야 할 성품입니다.

장례식에서만 필요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 동료, 동역자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약한 자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한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표현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들어 긍휼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세상이 참으로 혼탁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빛과 같아서 그를 볼 수도 없다고 했고, 예수님은 순결한 어린양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정결하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정결하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처소가 되도록 날마다 정결케 관리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피스메이커는 역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던, 끊어져 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날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관계 회복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화해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중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동일하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여덟 가지 복의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덟 가지 복의 핵심은 천국 백성, 천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의의 개념을 앞서 율법의 근원적인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사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박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박해 받으셨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또한 예수님 잘 믿기 위해 애 쓰다가 핍박당하고, 고난 당하셨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런 박해가 전혀 없다면, 내 삶이 아직 예수님처럼 율법을 근원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팔복 말씀은 10절의 부연 설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1-12)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로마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박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박해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박해와 고난 속에서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내 삶에 박해가 있는지,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박해받는 길을 갑니다. 융통성이 없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질책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집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며 이유 없는 박해를 받고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팔복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청중들은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나서려는 제자들,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얼마나 합당하게 살려고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려고 할 때 율법의 근원적인 실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천국 시민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주리고 목마름과,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천국 시민,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 여덟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나에게 부족한 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묵상해 봅시다.

2.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거나 고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의'는 율법의 근원적인 실현입니다. 요즘 나의 삶에서 형식적으로 치우쳐진 신앙 행위가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4. 올해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한 날 : . . .

7 너희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13-20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
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
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
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
가지 못하리라

비유로 하신 선언(13-16)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먼저는 일상용어에 비유해 공동체의 속성에 대하여 선언을 하시고, 이어서 율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십니다.

(13-1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이 둘의 종결어미는 개역개정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이 둘의 종결어미는 똑같습니다. 새번역성경은 원문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새번역, 13-1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예수님은 제자공동체를 두 개의 일상용어로 비유하시면서 동일한 서술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명령법이 아닌 직설법을 사용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되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이어 소금보다 영광스런 빛으로 제자들을 비유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5-16)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으로 빛이 집 안 모든 사람에 비치는 것과 같이, 착한 행실의 실천을 통해 세상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게 하고자 애썼던 구약의 공적이 아닌, 앞서 기록된 3절에서 12절까지, 뒤이어 기록된 21절에서 48절까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를 통해 착한 행실의 기준을 명확히 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대한 입장(17-20)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헬라어 원문에는 부정사 μή메로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는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을 부정할 때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즉 이어진 내용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보다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구약의 율법이나 예언을 폐하는 존재로 오해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자신은 결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닌 완성자임을 스스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완성하려 한다는 것은 죄인 된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끄는 외형적이며 방편적인 성격으로 제한된 율법을 넘어, 율법의 제정자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율법에 담긴 참 의미를 구현함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선언하십니다.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용어인 ἀμήν아멘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는 뜻을 갖는 히브리어 אמן아멘의 음역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문장의 마지막에 표기해, 앞서 진술한 내용이 진실됨을 보증하는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민5:22 ; 왕상1:36).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나 송영의 끝부분 사용되었습니다(갈1:5 ; 엡3:21). 이러한 용례는

오늘날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선 17절에서는 부정사를 통해 이어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보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절에서는 그와 반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율법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를 교훈하십니다.

(19-20)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당시 랍비들은 율법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차별적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며,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 바른 태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제자공동체를 향해 그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앞서 선언 된 소금과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만을 중시하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에 잠식 당하는 것

이 아닌, 본질적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의에 충실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공동체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반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시작 절과 마지막 절에서도 그 대상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무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5: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입니다. 세상의 무리가 아닌 그리스도인 된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무리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제자 된 저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과연 저희는 제자로서 착한 행실을 세상 무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선언에

합당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Coram Deo(코람데오). 매순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언되었음을 기억하며, 착한행실을 보일 때, 저희 공동체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 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 된 공동체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선언하심을 보며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맛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주님의 시선으로 조명하여 주십시오. 많은 무리 중에 속하기보다 말씀의 본질을 숙고하며 그에 따른 착한 행실을 구현하는 적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순간 저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공동체로 오늘 하루도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주위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2. 자의적으로 말씀의 경중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3.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돌이켜 봅시다.

4. 제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헤아려 봅시다.

5. 매순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합시다.

묵상한 날 : . . .

8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21-32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
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
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
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
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고발하는 자
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
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
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
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
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
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

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살인하지 말라(21-26)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山上垂訓)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5: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의'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서 48절까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6가지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법, 원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1-26절은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1) 옛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

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중, 여섯 번째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끝입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사형이었습니다. 특히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실수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의미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배우고 가르친 것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였습니다.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재판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즉 세상 법정에 가지 않도록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방재판소였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은 자신과는 무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 앞에서 아주 떳떳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라가'는 아래를 보면 '히브리인의 욕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바보', '천치'라는 뜻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분노하는 것', '형제·자매를 라가라고 모욕하는 것', '형제·자매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에게 분노하는 것, 바보라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의 출발은 자기 마음입니다. 상대를 모욕하는 말을 했다면, 이미 내 속에서 상대를 죽인 것과 같습니다. 즉 살인은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는데, 친구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친구는 굉장히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라가!"라고 말했다면, 그 친구를 내 마음에서 이미 죽인 것입니다.

인간이 낳은 최초의 두 인물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결실의 계절에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제물로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가 제물로 드린 땅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한 후에, 들에서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을 행한 것은 들판이지만, 들로 나가자고 말할 때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지만, 형제·자매에게 분노하고, 바보라고 함부로 말하므로, 우리 속에서 상대를 죽였다는 사실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인터넷 악성 댓글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릇된 편견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사용하지 않아야 할 내용물로 사람을 죽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23-24)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형제·자매에게 잘못하여서, 그가 나에게 원망할 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제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자매와 화해한 후에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즉 '화해 우선, 예배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26)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재판정까지 가게 되고, 또 옥에 갇히게 될까 염려하라는 것은, 혹 잘못한 일이 있다면 재판정에 가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사화(私和)'는 '법으로 처리할 송사(訟事)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 버림'이라는 의미도 있고, '원수였던 사이가 원한을 풀고 서로 화평하게 지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함께 길에 있을 때'는 '재판정으로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할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의 재판정도 있지만,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의 재판정도 있습니다. 그곳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27-32)

27-32절은 간음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27-28)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제7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도 이

성과 몸을 섞지 않으면, 자신은 항상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인과 동일하게 간음도 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는 불륜의 문제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간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고린도전서 6:18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만약 가게에서 주인 몰래 과자 한 통을 들고나왔다면, 도둑질한 물건은 내 몸 밖에 있습니다. 또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하나 훔쳐서 다른 곳에서 팔아도, 그 장물은 내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은 내 몸 자체가 짓는 죄입니다. 죄가 고스란히 내 몸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은 자기의 몸과 영혼을 죽이고, 상대의 몸과 영혼을 죽이고, 자신과 상대의 가족들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내 언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음란한 세상에서 나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첫째라면,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첫째와 같은 둘째입니다.

(29-30)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실족하게 하다'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skandalizō)'인데, 이 동사의 명사형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스캔들(scandal)'입니다. 지금은 '스캔들'이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나 '불명예스러운 소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원 의미는 '덫' 또는 '걸림돌'입니다.

오른눈이 죄를 범하면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은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마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는 말씀처럼, 눈에 들보(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통나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자기 허물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눈'은 우리로 하여금 성적인 범죄를 짓게 하는 제1의 기관입니다. 또한 '손'은 히브리 관용적 표현으로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가 자신을 영원한 멸망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32)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신명기 24장에 보면,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 주고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치되는 일'은 '간음'은 아닙니다. 당시 간음은 곧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서로 함께 살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분명한 사유'로 봅니다. 당시 이혼 증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써야 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부부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고 싶을 때, 이혼 증서만 써 주면 된다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일이 없다면,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남편이 그냥 아내가 싫다고 버리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허물이라고 하여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있었습니다. ①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행실이 부정한 것, ④질투하는 것, ⑤유전병을 지니는 것, ⑥말이 많은 것, ⑦도둑질입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2000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칠거지악 중에서 단 한 가지, '행실이 부정한 것(음행)'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

하게 배타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산상수훈 중 5:17-48절은 율법 조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역할도 해 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서로 만남의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한 일은 없었을지라도, 분노할 때도 있었고, 형제·자매를 향해 마음속으로 '라가'라고 말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시대에 더욱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쾌락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매일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가정이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가정의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당신이 돌아서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마음으로 정죄하는 행위, 악성 댓글, 잘못된 편견, 비양심적인 행동 등)

2. 혹 다른 사람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갚는(갚겠다고 약속하는) 결단을 하고, 시행합시다.

3. 더 정결한 삶을 살고, 가정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9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33-48

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 위에 주님이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듣는 모두를 덮습니다.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이가 없으며, 말씀 아래에서 선택을 피할 수 있는 이도 없습니다.

(마 5: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상수훈의 시작인 5장 1절은 예수님 앞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나눠짐을 보여줍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자,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에게 한 걸음 내딛는 자, 의를 향해 내달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21-48절은 제자들이 따라야 했던 여섯 가지 발자국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저 듣던 자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삶이셨고, 우리의 길입니다. 21-32절까지는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맹세(33-37절), 보복법(38-42절), 원수 사랑(43-48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맹세(33-37)

(33-37)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모세 율법은 맹세를 헌신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속해 있다는 고백과 선언이었습니다.

(신 6: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신 10: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율법이 반대했던 것은 거짓 맹세였습니다.

(레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개인의 욕심과 위선을 위한 포장지로 사용하기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레위기 구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실하지 않음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 이름을 이용하려는 속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가 더해간다고 세상이 나아지지 않으며, 지금도 매한가지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니 간접적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했고,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에도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맹세의 방법이 다채로워지고 강도가 더해질수록 서로를 믿기 어려운 곳이 되어 갔습니다. 신뢰는 말의 유창함과 목소리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잡한 계산을 버리고 단순하게 '진실'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진실한 삶이 말에 힘을 더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말을 더하려고 할 때, 멈추고 그 말을 뱉으려는 동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만 하고 했던 말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맹세하기 전에, 맹세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진실할 수는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결단의 고백이 사람들을 의식한 자기변명이 될 때, 맹세는 너덜너덜해지고 구차해지기 마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복법(38-42)

(38-42)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의를 향한 제자도의 다섯 번째 걸음(살인, 간음, 이혼, 맹세에 이어)은 바로 '폭력'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사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율법의 목적은 무제한적인 보복에 한계를 긋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하게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선 미리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상대방의 폭력성만을 강조하며 복수의 정당성을 찾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는 말. 그 말 속에서 책임은 모두 상대방에게 던져집니다.

주님께서는 폭력이 오고 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책임과 주도권을 제자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댄다는 것(39절)'을 예를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맞으면, 아픕니다. 뺨의 고통이 사라져도 심장 주변이 조여들며 쓰립니다.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쳤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다 화병이 납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시작은 뺨이었지만 상대방이 머릿속을 맴돌며 24시간 나를 채찍질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면, 뺨을 때리는 것

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세게 때려야 하고, 상대방의 울화통이 터지지 않는 것 같으면 손해 본 것 같아서 다시 화병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막기 위해 주도권을 우리가 쟁취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뺨을 맞을 때, 멍하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 왼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사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간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짐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의 불의함이 폭로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러한 희생적 평화의 길에 먼저 발자국을 찍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옷과 겉옷에 관한 이야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출 22:26-27)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스라엘 누구도 겉옷을 하루 이상 빼앗지 못하게 했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폭력으로 빼앗는 세상 속에서, 빼앗길지라도 인간성을 지키겠다며 벌거벗겨져 웅크린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벗겨진 이의 부끄러움보다 무자비한 불의가 폭로되며 드러난 퀴퀴한 속내를 주목할 것입니

다. 억지로 동행하게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배 당하던 사람들에게 임의로 자기 일을 도우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 리를 걷자고 했는데, 십 리를 동행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힘을 가진 자들이 '억지로 그어 놓은' 한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군인들은 감사를 표해야 할지 억지로 일을 시켰음을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허세를 부릴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힘 있던 자들이 주도권을 빼기고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해야 하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것도 그들이 빌리고 싶던 본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밝히게 하려는 의도의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43-48)

(43-48)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에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매일 더 넓고 깊게 나아갑니다. 사랑 안에서 원수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표현방법이 기도입니다. 더 사랑하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더 기도하면,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편을 나누고 서로 밀어대는 충돌사회 가운데 뒷담화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짜증과 불평과 분노가 이해와 배려와 섬김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진실성을 증명하셨고, 폭력의 시대 속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마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기도로 빛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신 구원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평화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며, 피할 곳 없이 선택해야만 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궁색한 맹세를 추가해가기보다 말을 줄이고 일관성 있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길 애쓰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며 폭력을 더해가기를 멈추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한계선을 확장해가는 참사랑을 배우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로 달려갈 뿐 아니라,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사랑이 필요한 세상에 인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말씀을 들으며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고민해 봅시다.

2. 말을 더해가며 자기 욕망을 감추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시다.

3. 오늘 하는 말을 적어가며 그대로 살고 있는지 진실성을 검증해
   봅시다.

4.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다'며 인간성을 잃은 짐승으로
   살고 있지 않나 돌아봅시다.

5. 사랑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며 기도합시다.

묵상한 날 : . . .

10 은밀하게 하라

마태복음 6:1-18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

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의(義)’이고, 의롭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일지라도 자기 의(義)를 드러내기 위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1-4)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義)를 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의(義)를 행하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일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즉 선전용(宣傳用)이나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은 사람들로부터 감사와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상(賞)을 받지 못합니다.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 중에 금해야 할 행동의 하나가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실천입니다. 그러나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나팔을 불 듯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로운 행위를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자기의를 드러내는 행위는 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조차 주의하며 은밀하게 하시라고 합니다.

(3-4)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제에 있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受惠者)의 인권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시혜자(施惠者)의 입장보다는 수혜자(受惠者)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한 구제는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기도(5-15)

(5-6)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 되기에 그 기도

의 진정성은 이미 상실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없는 기도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골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골방은 공간적 의미보다 시간적 환경적 의미의 골방이면 되겠습니다. 공간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런 장소가 없다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독립된 시간의 장소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새벽이나 한밤중에 집 거실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독대에 방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회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비슷한 크기의 목소리로 기도하거나 기도회에서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같이 침묵으로 기도한다면 사람의 시선과 무관하기에 그곳이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 때나 침묵으로 기도할 때나 은밀하고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7-8)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중언부언(重言復言)입니다. 중언부언은 문자적 의미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아닙

니다. 이를테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반복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기도자가 중언부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밀한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제대로 듣지 못하실 것이라는 불신의 기도를 삼가라는 뜻입니다. 주목할 만한 곳은 “이방인과 같이”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중언부언은 우상에게 주문을 하듯이 중얼중얼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우상이나 귀신에게 주문을 외우듯 중얼중얼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본받을 것을 본받아야 하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본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세상의 관습과 문화가 교회 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고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9-13)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

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의기도'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장되도록 우리 자신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매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영원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옵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유한하고 결핍한 존재임을 매일 확인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매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기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용서해 주신 분의 자비를 생각한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기도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사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매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만 악과 무관해 질 수 있음을 매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삶이 악에게 빠지도록 합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의 기도는 앞부분까지 기도한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기적인 기도를 하거나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14-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기도' 중 사함, 즉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반복해서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주님의기도' 12절과 차이점이 있다면 12절은 죄 사함이고 여기서는 잘못에 대한 용서입니다. '잘못'으로 번역된 원어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12절의 죄는 빚진 것과 연관된 죄입니다. 용어의 차이보다 주님께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복강조는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은 형식적인 용서보다

마음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중심을 보십니다.

금식(16-18)

(16-18)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교생활 3대 의무로 구제, 기도, 금식이 있었습니다. 금식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때나 겸손함을 보일 때나 경건의 방편으로 행해졌습니다. 민족 전체가 일 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유대력 1월 10일, 태양력은 9월이나 10월에 해당)에 정기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과거 40일 금식할 때 목요일에 시내산을 오르고 월요일에 하산했다고 믿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 모든 금식이 구제나 기도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경건한 사람이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경건 생활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사 달려와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건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측은히 여기사 달려와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잊지 않으며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경건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며 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의(義)를 행함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골방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경건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묵상한 날 : . . .

11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19-34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
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
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
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19-24)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살핀 6:1-18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한 교훈이었고, 19-24절은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또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고대에는 지금처럼 보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현금이 가장 큰 보물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 외에도 은행 잔고, 주식, 부동산, 예술작품, 신기술 등등이 보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보물은 옷과 음식, 그리고 동전이나 은전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꼭 조선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물자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양하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양복은 검은색 아니면, 감색이었습니다. 그 양복을 입고 출근도 해야 하고, 결혼식장도 가야 하고, 장례식장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단벌 신사복'이라는 말도 있었고, 대중가요 중에서도 '단벌 신사'라는 노래도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거대한 여리고 성을 칼 한 번, 창 한 번 사용하지 않고, 그 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서 취한 것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님의 창고로 들이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전리품은 군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 성에서는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 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서 몰래 전리품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감추어 둔 것이 200세겔(약 2.3kg)의 은과 50세겔(약 575g)의 금과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습니다. 땅속에 감추어 둘 것인데, 지금이라면 외투는 감추어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에 외투는 귀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고대에는 곡식도 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소출이 많아지자, 더 큰 곳간을 짓고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자를 표현할 때, '천석꾼', '만석꾼'이라고 했습니다. 곡식은 곧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전이나 은전이 보화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1)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의복과 곡식과 동전·은전이 보물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좀'이 옷에 스는 녹이라고 한다면, '동록(구리표면에 스는 녹)'의 문자적인 의미는 '음식'입니다. 즉 '곡식에 스는 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과 은전은 도둑을 맞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시며, 보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 값진 것은 다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물은 좀이 먹는 일도 없고, 녹이 스는 일도 없으며, 도둑맞을 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는 유한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23)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속담에서 눈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눈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진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르면 인생이 밝을 것이고, 나쁘면 인생이 어두움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하다(하플루스)'는 '좋은'이라는 뜻도 있고, '분명한', '순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단어는 항해할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배를 타고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백령도로 갔다가, 인천 서쪽 맞은편 중국 칭다오(청도)로 갔다가 다시 군산 쪽으로 왔다가 하는 것을 '성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인천에서 계속 남쪽으로 가면서 태안반도 앞을 지나고, 군산 앞바다도 지나고, 목포, 진도 앞바다도 거쳐서 제주도로 가는 모습을 '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 방향', '한 목적', '한 시선'

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향해 '한 방향', '한 목적', '한 시선'을 가지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밝아질 것이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반면에 '나쁘다(포네로스)'는 '악하다'와 '병들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눈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나쁘게 되는 것, 즉 영적인 시력이 떨어지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믿음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기 욕망과 병든 이기심에 초점을 맞추다가 영적인 근시안이 되고, 또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동떨어진 세속적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다가 영적인 원시안이 되며, 자기 욕망과 병든 이기심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가 영적인 난시안이 됩니다. 영적인 근시안과 영적인 원시안, 그리고 영적인 난시안의 상태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영적인 노안의 소유자가 됩니다.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이 헬라어로 '맘모나스'인데, 이것은 '믿다', '신뢰하

다'에서 온 말입니다. 고대로부터 재물은 사람들이 늘 믿는 것이었고, 가장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맘모나스'와 '재물'은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영어단어, '맘몬(Mammon)'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 딴 사람은 못 해도 자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섬기며 살곤 합니다.

염려, 하지 말아야 할 것(25-34)

25-34절은 의식주 염려에 대한 교훈과 그리스도인의 바른 수선 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다'는 '나뉘다', '찢어지다'의 의미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세상을 생각하면, 마음이 나뉘는 것이고, 그때 우리 속에서 염려가 스멀스멀 기어올라옵니다. 그래서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을 찢어놓습

니다. 사람들이 의·식·주를 염려하는 것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 좀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또 내가 앉은 의자보다 한 단계만 더 높은 의자에 앉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더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의자에 앉으면, 우리의 탐심은 채워지는 듯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들보다 조금 더 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이 해결되면, 만족하며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숨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아주 높은 권력의 의자에 앉았을지라도, 또 자신의 창고에 상품이 가득하고, 자신의 금고가 가득한 금은보화로 인해 문이 잘 닫히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 숨을 내어 쉬고서 다시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자신이 앉았던 자리, 자신이 소유했던 것은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 됩니다. 또 사람들은 그가 입었던 옷을 벗기고 호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힙니다. 그가 좋아했던 음식이 산더미처럼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구체적인 예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고'는 '저장장소'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보화를 감추어 놓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살지 않습니다. 또 1년 치, 2년 치 먹을 것을 쌓아 두고 살지도 않습니다. 큰 먹잇감을 잡아 왔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분량입니다. 새들은 자신의 남은 생을 책임지겠노라고 귀중품도, 비상식량도 쌓아 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공중의 새를 길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헬리키아)'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장, 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명', '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본에서는 '키'로 번역하고, 어떤 역본에서는 '수명'으로 번역합니다. 본문에서는 '수명'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한 자'는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규빗'과 같은 길이 단위인데,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45.6cm를 나타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는 말은 염려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사람의 키가 45.6cm 더 자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목숨에 대해서 아무리 염려한들, 1시간도 늘일 수 없

다는 말씀입니다.

(29-30)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습니다. 그는 매일 산해진미를 먹었을 것이고, 그의 옷은 그 자신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이 꽃 하나보다도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화려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략결혼을 하여,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특히 솔로몬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그 여인들을 따라서 그의 신앙도 병들고 말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 동안 백성을 동원했고, 그 후에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동안 백성 동원했습니다. 그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백성 가혹한 세금을 거두고, 과도한 부역과 병역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의 원성이 하늘

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삶이 언제나 염려하는 인생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33-3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를 먼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내일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을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삶과 믿음에서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달려와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나를 돋보이게 해 주는 것만이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에 함몰되어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이 누렸던 것을 부러워하고,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와 같은 삶을 시시하게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었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했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 인정을 받고 싶어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염려를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늘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남은 생애도 전부 맡기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5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귀한 것(분)은 무엇입니까? 그것(분)을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져 주신 것이 깊이 새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4.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12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1-12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비판하지 말라(1-6)

유대 사회에 만연한 악습 중 하나는 형식적인 율법으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비판의 문제에 대해 언급합니다.

(1-2)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비판은 단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새번역성경에서는 비판이 심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비판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기에 앞서 자신의 들보를 먼저 빼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5)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티는 '가시'나 '작은 알갱이'를 말하고, 들보는 '건물을 받치는 나무 기둥'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율

법과 계명의 지극히 작고 사소한 '티' 같은 것을 어긴 자들을 찾아내 그들을 가혹하게 정죄했지만, 실상 자신들은 더 심각하고 큰 오류인 들보 같은 율법의 정신을 위배한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큰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잘못만 찾아 정죄했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있어도,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는 '티'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들보'로 보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성을 지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내와 가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내는 신기할 정도로 과거에 제가 서운하게 한 일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는 아내가 저를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 선명히 기억이 나는데, 아내는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작은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의 죄성 속에는 상대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은 이러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죄성을 단호히 거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는 없는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판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일은 결코 그 일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교훈(7-11)

이제 7-11절에서 주님은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주십니다.

> (7-11)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을 단순히 나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 응답의 비결로 여기거나 삼는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시도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가에 대해서도 적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이유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두드릴 수 있는 이유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아주 단순한 진리이지만, 가장 쉽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대개 우리의 우선적인 반응은 그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거나,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 돌아다니곤 하는 일입니다. 실상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7-11절은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데,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라면 떡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선한 아버지는 어떠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세 번째 7-11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가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11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13절에는 '좋은 것'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얻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거대한 역사와 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한 개인의 역사까지도 세밀히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방식대로 응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은 우리 삶에 일하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넓게는 5:17절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인 1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12)

구약 율법을 요약한 '황금률'로 불리워지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바대로 먼저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배려를 받고 싶다면 먼저 배려를 하고, 사랑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먼저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향해 달려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먼저 인격적인 대우, 배려, 사랑을 베풀어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비판이 앞서기 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늘 잘 돌아보아, 사랑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며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비판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2. 비판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3. 7-11절에서 주님은 기도와 관련된 교훈을 주시는데,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4. 황금률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묵상한 날 : . . .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13-29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
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
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
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
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
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천국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치열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배우는 자의 동일한 고민은 전한 말씀, 배운 말씀을 머리에서 손과 발로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전하고 배운 말씀을 저장하는 창고가 될 뿐 내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한 말씀, 배운 말씀을 어떤 자세로 살아내야 하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13-14)

(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먼저 본문은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과 큰 문, 넓은 길입니다. 문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연결시켜주는 출입구이며 길은 어떤 장소로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과 길의 존재목적은 내가 이 문을 들어가면 이 길을 따라 걸으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나를 데려다주는 것이 그 본질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과 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넓은지 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가 멋지다거나 2층 버스라서 아무 버스나 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버스가 오래되었어도 사람이 많고 비좁아도 그 행선지가 내 목적지라면 그 버스를 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며 큰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 어떤 길로 걸어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그동안 나눈 산상수훈의 삶을 살면 바보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욕도 할 수 없고, 화도 낼 수 없고, 음란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한 일은 비밀로 하는 이런 삶은 누구나 걸어가고 싶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반대로 내 내면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죄의 길은 편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육신의 쾌락은 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생명과 멸망으로 나

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당장 포기와 희생과 조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옳았다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락함의 문과 길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길을 힘써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자리가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15-23)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짓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거짓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본심은 숨기고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 양의 옷은 친절, 외식된 종교행위, 기분 좋은 칭찬, 기복신앙, 훈련된 매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예쁜 포장지로 포장된 상자 속 폭

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수로 그 상자를 열었다간 내 삶과 신앙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바로 그들의 삶과 인격의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지도자인지 노략질하는 이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삶을 살게 되며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지도자들은 결국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하든 그 삶의 열매는 거짓과 탐욕과 음란과 이간질과 시기와 폭력과 같은 죄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의 선택과 태도 속에 그 사람의 내면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자신의 탐욕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온갖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실은 그 이득을 통해 자신의 부와 인기를 늘려가는 것을 보면 누가 거짓 지도자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내가 신앙적 멘토로 삼거나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분들도 그들

의 외적이거나 비본질적 요소에 현혹되지 말고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잘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삶에 보이는 화려함에 미혹되어서는 안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심지어 귀신도 몰아내며 많은 권능까지 행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외적 화려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을 닮은 인격적 열매 없이 외적인 화려함으로 포장된 거짓 선지자들의 사역들에 미혹되어 그 카리스마에 이끌리다 보면 함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선 결국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닌 인격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

다. 내가 거짓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참석 횟수가 높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 외적으로 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보다 더한 봉사와 고행과 헌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렬한 종교행위에 중독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곧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것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석위에 세운 집(24-27)

이어서 24절부터 2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건축에 비유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제법 단단한 모래표면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래표면이 단단하다고 그냥 그 위에 집을 지으면 평상시는 모르지만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래층을 파고 또 파서 결국 단단한 돌 층에 도달할 때까지 기초를 파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이것은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석위에 세운 집은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래를 파고 또 파서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견디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유쾌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 끝까지 애써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기초를 어떤 개인의 사상, 시대의 철학, 자신의 소견에 둡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기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시대마다 바뀌는 사상과 철학, 개인마다 다른 소견에 삶의 뿌리를 두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인감도장을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반석이 되어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처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28-29)

(28-29)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어떤 강의를 직접 책을 쓴 저자 직강으로 듣게 되면 그 강의는 매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가 그 책의 의미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설명보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저자 직강으로 그 본의미를 해석해주셨기에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르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본인이 그 가르침의 삶을 살아가시기에 그 메시지가 선명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언행이 예수님과 같이 권위 있는 자가 되려면 스펙과 학벌과 지위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에 말씀되신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고 반석위에 세운 집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일치의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갔던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공감해주시며 헐벗고 굶주린 우리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맛있는 음식까지 차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려 하기 보다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려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의 반석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공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며 거짓 선지자 혹은 그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3. 내 삶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묵상해 봅시다.

4. 주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며 주님의 말씀과 삶의 일치를 생각하며 묵상해 봅시다.

묵상한 날 : . . .

14 병을 짊어지셨도다

마태복음 8:1-17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14 예수께서 베드

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센병자를 고치심(1-4)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4절은 예수님께서 한 한센병자를 치유해 주신 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을 때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역과 북쪽으로는 갈릴리를 넘어 수리아(시리아)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더니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니, 다시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산상수훈에는 문자 그대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만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표적(기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삶의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표적이라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한센병자가 나아왔습니다.

(2)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당시 한센병은 최고의 천형을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센병(심한 피부병도 포함)자의 규례에 대해서는 레위기 13-14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센병자와 접촉을 하면, 곧바로 부정해져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몹시 슬퍼할 때 행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한센병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던 것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게 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부정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격리되어 성문(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발병하는 순간 가족들과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과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벤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선을 탔다가 집정관(로마 공화정의 최고의 권한을 가진 2명)을 구해 주고, 그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았는데, 한센병이 걸려 격리되어, 한센병자들만 사는 계곡에 있는 토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늘에서는 내리는 비를 맞고 깨끗하게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한센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참 대단한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 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7:22)"라고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고백과 이 고백이 같지 않습니다. 한센병자의 "주여!"는 "당신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뒤집으면,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병이 치유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한센병자가 치

유함을 받는 것은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고백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26:39)"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원숙한 믿음입니다.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한센병자를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 손이 긍휼히 여김이었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혀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제자들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족들에게로,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한센병자와 같은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 증서를 제사장이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서가 있어야 가족에게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증서는 한센병자에게 관계의 회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회복은 온전합니다.

또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한센병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드리는 예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평생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당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심(5-13)

5-13절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5-6)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있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군대

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의 청년에게 간구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간구의 이유도 자기 부모님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자녀를 온전하게 해 달라는 것도 아닌, 자기 하인이 중풍이 걸렸다고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 강점기에 일본 군대의 고급 장교가 조선의 한 청년을 찾아와서 조선인 하인이 병들었다고 간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9)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를 직역하면,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I am not worthy)."입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절대성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명령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진격도 하고, 후퇴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으로 오시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개역한글성경에는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적)을 보고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외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당연하게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고,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믿은 대로 그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하인은 자기 주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인이 병이 낫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주인이 간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함에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들을 알려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네가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신실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 역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11-12)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지막 때에 세계 각국의 이방 사람들이 믿음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았던 한센병자도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고,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자기 동족들에게 간곡하게 애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심(14-17)

14-17절은 베드로의 장모와 귀신들린 사람 등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 (14-15)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당시 베드로는 결혼하여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그녀의 손을 만져 치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열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손을 잡아 치유해 주셨습니다.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여, 그녀는 그 이후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16-17)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는 한센병자와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는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마태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낭비한 모든 것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들다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한센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성숙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람들의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치시고,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매일이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한센병자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주여 원하시면"이라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2.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중풍병이 든 자기 하인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로 중보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3.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4.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15

제자들이 따랐더니

마태복음 8:18-34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

내 주소서 하니 32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산상수훈(5-7장)을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10가지 기적(8-9장)을 보이십니다. 산상수훈을 앞둔 4장 23절과 10가지 기적을 마치는 9장 35절에 동일한 구절을 기록함으로써, 산상수훈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10가지 기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상수훈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천국의 실재를 말씀하셨다면, 10가지 기적을 통해 이제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신의 가르침을 시각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도래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 예수님께서 말씀과 실천을 함께 보여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말씀과 실천이 이어지는 삶을 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따르라(18-22)

먼저, 예수님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며,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일행은 갈릴리 지역, 곧 유대인의 지역에 있었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에 오르기에 앞서, 본문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두 사람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서기관은 문서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고대 사회 안에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글로 된 문서들에 접근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또 일부만이 책이나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은 단순히 기록하는 서기의 기술을 넘어,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규제하는 일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서기관들은 선생이나 해석자로서 회당에서 일하는 하급 관료로 비춰지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과 연계되어 있는 고급 관료들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종파적인 믿음을 가진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도 볼 수 있었

습니다. 따라서 NIV성경에서는 서기관을 율법교사(teacher of the law)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율법교사들은 전문가로 설 때까지 랍비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따르리이다'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좋은 랍비나 가장 유명한 랍비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는 당시의 시스템에 기인하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서기관의 속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당시 시스템상, 탁월한 선택이 될 것 같아 따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을 누렸지만, 예수님은 학파나 회당도 없고, 높은 직분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안락하고 보장된 혜택이 없는, 지금까지의 종교지도자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길이라고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에게 초점이 옮겨집니다.

(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여기서 제자는 12명의 사도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당시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요청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했던 제사장들도 가족의 구성원이 죽어 그 몸을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은 허락되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탈무드에 따르면 "죽은 친척이 있는 자는 '쉐마'(신6:4)를 암송하는 일과 16가지 복, 그리고 토라에서 언급한 모든 명령들에서 면제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이 사람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부친을 장사해야 하고 오겠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1-22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아버지가 아직 죽은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가 집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은 아버지가 죽은 일

년 뒤에 그 유골을 납골당으로 이전하는 장사의 두번째 단계를 완수하려고 그가 돌아가려고 했다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라는 비유적인 암시였다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 예수님은 다른 것들에 대한 충성, 심지어 부모의 장사를 치르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소명을 위에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초점을 맞춘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신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됨(23-27)

참된 제자의 길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는 무탈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고대 문헌들에 따르면, 갈릴리 바다는 해변에 깨끗한 백사

장이 있고, 물고기도 많은 신선한 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호수의 낮은 수면은 연중 온화한 기온을 제공했고, 사람들이 집 바깥에서도 잠을 잘 수 있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호수 표면에서 훨씬 높게 올라간 동서 양쪽의 산맥으로 인해, 봄과 가을에는 악명 높은 동풍이 산에서 거세게 불었고, 이 동풍으로 인해 배를 쉽게 삼킬 정도의 높은 파도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이 동풍을 처음 만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불어오는 바람은 그 베테랑 어부들마저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음의 위기 앞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이내 바다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로써 예수님께 자연세계에 대한 통제권까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평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바다가 익숙한 어부들도 당황할만한 큰 파도가 인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큰 파도가 여전히 우리를 에워쌀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자는 스스로 넘어서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린 자 둘을 고치심(28-34)

기적의 배가 멈춰선 곳은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이는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랴 건너편, 이방인의 지역이었던 데가볼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늘날 게르사(혹은 쿠르시)라고 불리는 마을이 위치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 곳에는 고대의 무덤들이 있었으며, 해변이 급경사를 이루어져 호수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지형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도, 제자 중 또 한 사람도, 배에 함께 탄 제자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거기 있던

귀신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9-32)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사람에게서 꺼내는 것도 가능하고 돼지떼에게 들여 보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돼지 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에 돼지 떼로 들어가도 좋다는 예수님의 허락에 따라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 바다에 뛰어내리며 몰사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돼지떼로 들어가도 좋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귀신이나 돼지, 모두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 부정한 것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였습니다. 돼지 떼가 몰사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돼지 치는 소임을 하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전했고,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 본문이 증거합니다.

(33-34)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일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가다라 지방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돼지를 기르고 있었던 이유는 잡아먹거나 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역이었다면, 돼지를 기르는 일이 없었겠지만, 지금 이곳, 데가볼리의 가다라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돼지는 중요한 경제수단이었습니다.

'떼'라고 불리는 이 돼지의 수는 수십 마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돼지 떼의 양을 밝히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2,000마리였다(막 5:13)고 증거합니다. 돼지가 한마리에 30만원정도라고 가정한다면, 2,000마리면, 6억의 손실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다라의 사람들은 귀신들린 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에는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잃

어버린 6억의 재산에 눈이 팔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에 때로는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번영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자의 길은 어느 처지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처지에 있든지, 제자의 삶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가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록 속에는 남을 수 없는 무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은 서기관의 기대처럼 성공의 가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소명을 두어야 하지만, 그것이 또한 평탄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선택한 이 길이지만, 주위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움켜쥔 것마저 놔버려야 하는 용기까지도 요구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이 길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함께 걸으며 우리가 토로하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십니다. 또한 이 어려움 끝에 있을 참된 기쁨을 보여주시며, 우리 인생을 성숙하게 가꾸어가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꿋꿋하게 제자의 길을 걷고자 용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노고에 공감하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를 함께 지어가심으로 세상의 기준에는 무명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에는 의미 있는 걸작품의 인생으로 가꾸어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세상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용기를 주옵소서.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걸작품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최근 무슨 일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눈앞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내 삶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봅시다.

3. 당신이 선택한 길과 제자의 길이 달라, 주님께 도리어 당신 곁을 떠나라고 하거나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묵상해봅시다.

4.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공감해주시며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16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9:1-7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

니라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중에 행하신 이적들을 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중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적, 마태를 부르심, 금식 논쟁이 있습니다.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이유는 갈릴리 호수 주변 성읍들을 찾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 남쪽 인근 성읍에서의 사역 이후에 북쪽으로 건너가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 동네'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거점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기 전까지는 나사렛이 생활 주거지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2-8)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전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마태가 강조하려고 했던 점은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이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심으로 성자 하나님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어떤 서기관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 대한 죄 사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서기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신성모독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이란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겠습니까?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서기관의 악한 생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언행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 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5)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이겠습니까? 개인의 견해에 따라 답이 나뉠 것입니다. 혹자는 죄 사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쉬운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

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말도 다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기에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한다는 것은 인간이 말로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간주했다면 어느 말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하지 않는 한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운 말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이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임을 알리는 호칭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든 복음 전파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고, 또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도 중풍병 고침도 쉬운 일입니다.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병을 치료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목격한 무리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온전한 영광이 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태의 집에서(9-13)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 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알리시고 그 집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때에 마태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많은 유대인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던 세리를 선택하신 것도 놀라운 일지만 세리 마태 역시 예수님을 즉각 따랐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입니다. '따르니라'의 원어의 뜻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동고동락하겠다'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마태는 아주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10-11)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세관에서 일하는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식사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마태의 동료인 세리와 당시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동석했습니다. 이를 곱게 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며 비난했습니다.

(12-13)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의 집에 오시기 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 사함의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기에 죄인들과의 만남은 지극히 당연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아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중풍병자처럼 죄 사함을 받고 죄인 취급당하였던 세리처럼 부르심을 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14-17)

(14-15)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을 마친 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금식은 유대인들의 종교생활 3대 의무 중에 하나로서 많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일반인들도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금식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메시아인 자신이 죄인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온 것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기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을 말씀하심으로 구원자이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실 날을 암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금식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6-17)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생베 조각과 새 포도주는 새 시대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뜻하며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구시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사고를 뜻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정신을 밝히고 율법의 형식적 행동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생베 조각과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낡은 옷을 입고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입장을 느끼고 이해해 주는 공감을 가지시되 생베 조각이시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발전된 공감의 소유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알리는 것이 발전된 공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금식 논쟁에 대해서 생베 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를 말씀해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 죄 사함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교체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해하는 기초 공감과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발전 공감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시려고 하셨습니까?

3.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예수님께서 금식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17

불쌍히 여기시니

마태복음 9:18-38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32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관리의 딸과 혈루병 여인(18-26)

마태복음 8-9장은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 주신 이야기와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과 한 언어 장애인을 고쳐 주신 이야기 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8-26 절은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신 것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쳐 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생 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나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말하길 자기 딸이 죽었는데,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한 관리'라고 되어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가 '회당장'이고, 그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회당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회당의 모임은 모두 회당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회당에서 성경도 가르치시고, 토론을 주도하시기도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높이시고, 유대인들은 낮추시는 발언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격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눈엣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회당장 야이로)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딸이 방금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딸은 12살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습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이 관리는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예수님께로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1)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 뒤쪽으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진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완전한 수를 말할 때 7이나 12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를 합하면 7이고, 곱하면 12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등은 그들의 숫자가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앓았던 세월이 12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녀가 극한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도 만났고, 가진 재산도 전부 허비했지만, 나아지기는 커녕 더 심해졌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왔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감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혈하는 여인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했고(레 15:25 참고), 여인의 부정한 하혈은 죄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겔 36:17 참고). 그래서 이 여인은 가족들을 비롯한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고, 성전이나 회당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당시 정당한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였기에 결혼했었다면 남편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여인이기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도 떳떳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한 줄기의 빛과 같았고,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지난 12년 동안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치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에 둘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아"라고 아주 따뜻하게 부르셨습니다. 즉 이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 주신 것이었습니다.

3-4세기에 살았던 교회역사가인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에 의하면 이 여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다 기념비를 세워두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내 혈루증을 고쳐 주셨다"라고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23-26)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는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몇 번 현지인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 플루트를 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장례식에는 곡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시신에 손을 대고서 정결례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과 능력의 손이 소녀를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뜸(27-31)

27-31절은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한 관리(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을 때,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다'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_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눈이 멀어 앞은 볼 수 없었을지라도, 영적인 눈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밝았습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메시아)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율법학자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이나 불편함, 연약함은 정말 중요한 것에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고, 강하게 해 주는 디딤돌이 됩니다.

(28-30a)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두 시각장애인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말로 믿느냐?"고 물으시고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지를 묻고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를 읽으셨는데, 그중에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눈이 먼 사람이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다윗의 아들(메시아)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메시아(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고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손으로 만지시며 그들의 눈이 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신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앞을 보게 된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들의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30b-31)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을 치유해 주시고는 종종 아무에게도 알리

지 말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병만은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고, 또 그런 내용이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어장애인의 치유와 긍휼히 여김(32-38)

32-38절은 예수님께서 언어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일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 (32-34)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언어장애인이 된 사람(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들의 가치관을 버려야 함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왜곡하고, 깎아내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을 아는데,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도시와 마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쳐 주심은 예수님의 사역의 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37-38)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은 인간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

내 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장인 10장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회당장)의 딸을 살려 주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쳐 주시고,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이 들려 언어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고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러하였습니다.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긍휼히 여기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억지로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측은히 여김'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

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추수할 제자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본래는 관리의 딸처럼 영적으로 죽었었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평생 부정한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일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할 때에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것을 거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한 부분이 강해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수님께서는 한 직원(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의 눈의 뜨게 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영이 주님으로 인해 소생되며, 영적인 눈이 뜨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2.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있는 고통을 치유해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3.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당신의 삶에서 가장 불쌍하게 여김을 받기 원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4.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18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1-23

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
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
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4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
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
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
서 평안하기를 빌라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
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
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 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17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권능과 하나 됨(1-4)

본문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를 부르게 되는 배경은 마 9:37-38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이란 헬라어로 엑수시아/뒤나미스, 즉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란 것이 폭발적인 것보다, 잘못된 것을 되돌리는 강한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고, 병이 생기고, 약한 것'이 있는 것은 무언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정상 궤도를 돌던 인공위성이 다른 궤도로 빠지는 오류가 나거나, 열차가 철로에서 탈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정상궤도나 정상 철로로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것은 인공위성이나 열차가 가진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상궤도의 삶이 아닐 때, 자아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만이 정상궤도의 삶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권능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적인 능력만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삶의 변화는 무엇보다 내면의 변화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먼저 따르고 적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권능의 근원은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전,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각각 불러 하나로 모으신 것입니다. 엡 4:3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평안의 줄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2-4절에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과 생

각이 달랐던 12명의 제자들은 다들 생각과 입장이 달랐을 것이며, 분명 그 안에서 여러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 됨의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하나 됨을 이루고 지켜가는 삶을 배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을 때, 혼자가 아닌 함께였습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됨을 깨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 됨을 지켜나가는 마음과 삶의 노력이 행해지도록 말입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평안을(5-15)

(5-7)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6절의 이스라엘 집이란, 목자 없이 헤매는 양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킵니다. 제자들은 이방민족에게 간 것이 아니라, 동족들에게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냄을 받는 곳은 새로운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이스라엘 집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외칩니까? 단순합니다. 천국이 가까

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내보이라는 것입니다. 9-1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삶에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내보이는 삶이 바로 권능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어서 권능의 삶은 또한 평안을 비는 삶입니다.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위로며, 담대함'입니다. 예수님도 막 5:34에 열두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가 권능을 소망할 때, 평안이 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도 사역을 나간다고 했을 때, 한편으론 두렵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임한 권능이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평안으로 변화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권능은 앞서 언급 드린 대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격려보다는 비난과 불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평소 무엇을 쏟아내는가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격려와 힘을 쏟아내고,

다른 이는 매사에 비난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콜라병을 쏟으면 콜라가 나옵니다. 주스병을 쏟으면 주스가 나오듯이, 내 안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쏟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평안을 머금고 평안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순결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16-23)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란 머리가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지혜하면 떠오르는 것은 솔로몬왕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왕상3:9-10)"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자세와 그 마음가짐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받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두 명의 창기 재판입니다. 아무리 고대 근동시대라도 왕이었던 솔로몬이, 당시에 소외

되고, 주목받지 못했던 창기 여인들의 애환을, 왕이 직접 내려와 들어주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비결, 두 번째는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왕상 4:29)" 넓은 마음은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품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인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수많은 백성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두 가지 기적 중 하나는 자신의 품에 들어간 손이 문둥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일지라도, 내 손에 오물이 묻으면 그것을 내 품에 가져가서 닦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 손을 네 품에 품으라고 권유가 아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문둥병이 된 손을 품으로 가져가자마자, 새하얀 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손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끌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을 다니며 귀

신을 쫓아내는 것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다름 아닌, 상대방의 상황을 듣고, 그를 품어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때, 나와 내 주변인들과 함께, 은혜의 변화가 생기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면서 동반되는 것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고 합니다. 순결함은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죄악의 것들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직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7-22)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자들은 놀랍게도 이방인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방인의 왕이나 총독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을 때에 미리 어떤 변명거리를 인간적인 지

식으로 계획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론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담대하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주님의 재림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므로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며, 말씀으로 끝내 견디며, 우리가 밟는 땅 끝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초공감과 발전공감해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하루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권능을 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권능의 은혜로 저희 내면의 본질적인 모습들이 변화되고, 저희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에 분별을 흔들고, 지병과 약함의 문제들을 주의 권능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의 삶이 정상의 궤도로 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저를 통해 하나 됨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을 품고 진정한 지혜가 제 삶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면의 모습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현재 내 삶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평안이 임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3.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 중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4. 주의 권능을 사모하는 신실한 삶을 위해, 돌이켜야(회개)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묵상한 날 : . . .

19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마태복음 10:24-42

24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26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연한 박해 (24-25)

(24-25)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24절과 25절은 앞선 박해에 대해 하신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언젠가는 자신의 선생처럼 될 것을 상상하며 노력했었습니다. 또한 종들 역시도 그 주인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께서 받으실 고난과 박해가 제자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있는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이들은 마12:24에 바리새인들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이르기도 하지만, 문자적 의미는 '집 주인'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난했던 말을 통해서 언어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박해가 있음이 당연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26-33)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박해를 받는 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26-33절에서 예수님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 (26-27)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근원적 이유는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언젠가는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가르친 복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광명한 곳과 집 위 높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전달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단 하나의 진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갖는 종말론적 성격으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제자들이 최후 심판의 그 날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 제자들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자들에게 발생할 박해의 최악은 죽음 곧 순교까지 당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박해자들은 오직 사람의 몸, 육체에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영혼까지 지배하시는,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9-31)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인 하나님이지만, 참새와 같은 가장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이유는 그 머리카락 단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살피시는 이유는 '너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귀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에 어떤 박해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2-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박해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을 전달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를 시인하다'는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다'는 사람들의 위협에 굴복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거나 전하지 못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둘 모두 '사람들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행동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세상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부인하는 행동은 마7:21-23에서 말하고 있는 입으로만 예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행동

과 실천은 사람들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예상치 못한 제자의 길(34-39)

34-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36)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 자체이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화평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화평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믿음 없는 평화는 헛되며 일시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화평은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이뤄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가족 사이에서도 불화와 적대감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35-36절의 가족 간 불화와 적대감은 미 7:6절을 인용한 것으로 종말론적 예언의 마지막 때에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에 종말을 가져온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일어난 가족의 분열 역시도 종말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39)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박해의 최종 단계가 순교라는 것을 28절에서 말했었습니다. 이제는 순교의 형태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희생과 영광의 단어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수치의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이 모든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39절이 38절의 해석을 돕는 부연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삶의 문제나 곤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자신의 자아가 죽는 것을 포함하는 극한

의 순종과 자기 부정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역설적이게도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40-42)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내용이 박해에 집중했었다면, 오늘 본문과 10장 전체를 이어오는 제자 부르심과 파송의 내용은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 (40-42)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의 집안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은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10장의 시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침을 주시는 듯 했던 말씀이 이제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까지 왔습니다. 문맥을 보면 어린아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입니다. 앞서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와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평범하고 이름 없는 '평범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됩니다.

또한 평범한 '작은 자'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전달하는 순간 세상과는 적대적이 됩니다. 우리가 소수가 됩니다. 아무런 지위도 얻지 못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하나는 패합니다. '작은 자' 둘은 맞설 수 있고, '작은 자' 셋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최후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하나님께 시인해주실 것을 믿으며 '작은 자'들이 함께 지어져 박해를 극복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음에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박해를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빈번하게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굳건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자들로 각자 각자는 약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세 겹 꼬인 줄로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박해는 무엇인가요?

2. 언제 하나님의 보살핌을 느끼나요?

3.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인가요?

4.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화평이 어떻게 실현되어가고 있나요?

묵상한 날 : . . .

20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마태복음 11:1-19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10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 만일 너

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17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파송설교의 종결과 전환(1)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11장은 예수님을 대체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앞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10:1).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10:5-6).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역과 대상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떠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동네‘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의 동네인 갈릴리의 고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고을들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고을들로 함께 가십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실제 삶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 자신은 가르치시며 전도하심으로, 직접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에 세우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던 것처럼, 사역의 자리에 항상 함께하십니다. 때로는 섬기는 일이 힘들고, 지치며, 때로는 마음같이 잘 안될지라도,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고 또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2-6)

2절에서 6절은 세례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등장한 세례요한은 지금 11장에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3)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요한은 로마 식민정권의 앞잡이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정죄하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 라는 표현은 곧 메시야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야, 곧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두 가지 의미의 질문을 보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과연 강력한 권능의 메시야인지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로마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헤롯의 불의함에 대해 단호히 정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로마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식민 정권에 대한 어떠한 신적 심판이나 선지자적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소외된 사람들과만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적인 실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의 출옥에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성도의 삶에서도 종종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인데, 나를 저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답을 제시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해답은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 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해답이 됩니다. 4-5절입니다.

(4-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맹인이 보는 것, 앉은뱅이가 걷는 것, 나병환자가 치유받은 것, 못 듣는 자가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사 61:1-2)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

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약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야가 맞다는 메시지를 전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행하고 계심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의문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 선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깊은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문이 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의 추억을 떠올릴 때, 우리 안에 스며든 신앙적 의문은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에게 주신 답변이자, 신앙과 삶의 의문을 갖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7-15)

7절에서 15절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9-11절입니다.

(9-11)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를 설명하시면서, 10절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너희가 구하는 주님' 앞에 보냄을 받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라기서는 메시야가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증거합니다.

(말 4: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또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준비한 길로 오시는 주가 바로 예수님임도 함께 알리십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들을 말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이보다 큰 세례요한도,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날 천국백성보다는 작은 자입니다. 이제 세례요한의 시대는 저물고, 본격적으로 천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 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의 냉담한 반응(16-19)

16절에서 19절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 세대의 냉담한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6-19)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아이들 사이에 결혼놀이와 장례놀이가 있었습니다. 결혼놀이는 신랑과 신부, 피리연주자, 춤추는 역할을 정하고, 동그랗게 서서 서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기로 한 아이가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한 장례놀이는 죽은 메뚜기들을 모아놓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흉내를 내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통곡을 해도, 가슴을 치기로 한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이 왔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의 방만한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무반응의 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례요한과 예수님 모두를 배척합니다. 모세는 거짓 예언자들이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니 그들을 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신13:4-5),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먹기를 탐하며 술에 잠긴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합니다(신21:18~21). 요한에 대해 사람들은 그의 순수한 금욕적 신앙에 대해 귀신이 들렸다 판단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술에 취한

방탕한 아들과 같으니 분명히 거짓 선지자일 것이라고 맹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례요한의 행한 일, 즉 회개의 세례로 영혼들을 준비시킨 것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 즉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백 마디의 외침보다, 한 번의 묵묵한 선행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열심 어린 설명보다 묵묵한 섬김이 오히려 죽어있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선행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를, 삶으로 주님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은 종종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어주셔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보다 한 번의 묵묵한 섬김으로 주님의 지혜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생활 중에 의심이 들 때마다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3. 나는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까?

4.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과 내가 생각하는 주님은 어떠한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묵상한 날 : . . .

21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20-30

20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21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당연시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히자, 자신들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뺑소니쳤던 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 못해 나중에는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의 부활"을 외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겁에 질려 숨어있던 열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열한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동료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는 한자 격언이 있습니다. 즉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실제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도마는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요 20: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펼치고 계신 권능의 역사를 세례 요한은 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랬던 그도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질문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 중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구현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실상과 믿음은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쯤은 성경에 나타난 이적들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의 삶속에 구현되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권능을 행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는 권능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하늘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자리,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3.2km 거리에 고라신이 있었으며, 가버나움에서 동쪽에 위치한 벳새다는 어촌 마을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었습니다(요 1:44).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인을 향한 주님의 경고(20-24)

(20-24)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고라신과 벳새다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20-21)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도시에서도 가버나움에서처럼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도시를 향해 비통에 찬 목소리로 "화 있을진저", 즉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도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이 두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구약에서 악한 도시로 지적하고 있는 이방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이 같은 권능을 행하셨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조차도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통탄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마리아를 통해, 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막 16:14). "완악하다"는 말은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서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음에도 완악한 그들은 현상 자체만을 받아들였을 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더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자, 인근 각처는 물론 이웃 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베드로의 장모, 백부장의 종,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병자, 야이로 회당장의 딸, 열 두 해동안 혈루증으로 심신이 망가진 여인, 귀신들린 자 등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주셨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라신과 벳새다 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함과 타락과 교만과 완악함의 대명사와도 같은 소돔에서 이 같은 권능을 행하셨다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질타하셨습니다.

앞서 두 도시가 완악했다면 가버나움은 완악한 것은 물론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은 완악하고 교만한 가버나움을 향해 "가버나움아 네가 ...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23)고 경고하셨습니다. 완악함과 교만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현상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은 종국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는 한자 격언은 계속해서 "백견이불여일각(百見而不如一覺)" 이라는 격언으로 이어집니다.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깨우침이 낫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 그 길로 하나님의 나

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권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만이 완악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은 현상에만 집중하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 외에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견이불여일각(百見而不如一覺)" 이라는 격언은 "백각이불여일행(百覺而不如一行)"로 이어집니다. "백번 깨우치는 것보다 한 번 행함이 낫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행위나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가장 큰 권능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라신, 벳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쉬어라(25-30)

(25)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꾸짖은 도시는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자처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겸손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28)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은 율법의 본질에서 벗어나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백성에

게 적용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주님께서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을 과감하게 배격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해주심으로 안식일의 본질이 생명의 존엄임을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30)"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말씀을 통해 사람으로 살게 함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간음을 확대 해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학생이 공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공부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고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성경 말씀을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멍에로 여기고 있다면, 주일 설교에서 맏아들이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29) 라고 제시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온유

하심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와 기꺼이 십자가의 멍에를 매신 주님의 겸손하심에 감사하며,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쓸 때 우리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비로소 쉼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현상에만 집중하고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멸망을 경고하신 완악한 고라신과 벳새다 그리고 완악하고 교만한 가버나움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매고 있는 멍에가 왜 이리 무거운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가 어디에서 기인했나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완악함과 교만 때문이 아닐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쉼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듯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어리석은 세상의 조류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 주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함이 있고, 참 안식이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수님이 고라신, 벳새다, 가버나움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이들 도시와 주일 설교의 맏아들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4.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5.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묵상한 날 : . . .

22

나는 자비를 원하고

마태복음 12:1-21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3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9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10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15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

시고 16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2장 중 본문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의 근본정신을 깨닫지 못하여 율법의 형식에 치중했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1-8)

(1)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 때'는 물리적 시간을 뜻하지 않으며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

는 '카이로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11장의 사건과 연결된 시간이라기보다 안식일 논쟁의 사건을 알리는 특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허기진 배를 조금이나마 채워보려고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2)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제자들이 타인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절도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행위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신23:25).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제자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배가 고파 제사장을 찾아갔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의 전에 놓여 있는 떡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되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진설병은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유다지파 다윗의 행동이 죄라고 말하는 곳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으며 당시 유대인들조차 다윗의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행동이 무죄임을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의 형식주의에 얽매어 율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5-6)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놓여 있는 진설병을 교체하는 업무와 안식일마다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업무를 감당했습니다(민 28:8,9). 이러한 제사장의 업무 역시 노동행위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행하는 제사 업무를 위한 노동에 대해서는 죄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율법

의 형식보다 율법의 근본정신을 왜 모르느냐는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성전 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습니다. 성전은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능이 있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십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죄가 없듯이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위는 죄가 없게 됩니다.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비'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불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제나 호의나 친절입니다. 타인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의 형편이 딱한 사람들에 대한 자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원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자신은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임을 알리심과

동시에 안식일 규례의 참 정신을 깨달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속박하려고 정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제하며 돕는 행동이 안식일을 범한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 역시 안식일의 참 정신을 깨우쳐주시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9-21)

(9-10)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안식일 규례를 어기게 함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11-1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의 답변 논리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한 답변과 동일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선한 행동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끌어내는 노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일 또한 마땅히 옳은 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며 지키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본심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정신을 알려주셨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은 성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자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

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왜곡하고 오해함으로 자기 가치에 갇혀 거기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경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삶의 적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함을 명심하여,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5-16)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옳은 말을 하여도 왜곡된 자기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모략을 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더 이상의 반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때론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진리에 동의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옳은 길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며 힘이 되어 주십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17~21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7-18)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지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17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죄인의 죄를 사하기 위해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미래에 있을 심판을 알리시는 분으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택한 종'과 '나의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택한 종, 예수님을 뜻합니다. '종'으로 번역된 단어는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스'입니다 이 단어는 '종'의 개념보다 '아들'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심판의 날 이전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약 770년 전에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19)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특징으로 다투지 아니하시고 들레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들레지 아니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떠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도 병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연약하여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정도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할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알리러 이 땅에 오셨지만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켜 죄를 사하시고자 함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21)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약의 예언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이방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 오신 분에게 누가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율법의 근본정신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자신의 삶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시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 때까지 미루시는 예수님을 저희의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많을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탕자의 형처럼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세속적인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꾸준히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있는 떡(진설병)을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과 안식일에 환우를 고치는 것처럼 안식일에 가능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성전보다 더 큰 이'는 누구이며, '성전보다 더 큰 이' 안에서 행한 일은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4.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후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예수님께서 심판 이전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상한 갈대와 꺼져 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23

힘 입어...
힘 입어...

마태복음 12:22-37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알세불 논쟁(22-30)

오늘 본문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바리새인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2-30절은 귀신이 들려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신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어처구니없는 비난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고쳐주다'가 헬라어로 '데라퓨오(therapeuō)'인데, 여기에서 '치료', '요법'을 뜻하는, 영어단어 'therapy(데라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데라퓨오'가 당시 사회에서는 '치료하다'라는 뜻보다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여 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

었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신 것은 철저하게 그 사람을 섬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이러하였습니다.

(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사람들은 모두 놀랐는데, '놀라다'가 헬라어로 '엑시스테미(existeemi)'인데,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밖에 서다' 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단어가 'ecstasy(엑스터시, 황홀감)'입니다. '놀라다'를 우리말로 하면 '혼이 빠지다' 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던 것은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을 고쳐 주실 때도,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틀림없이 메시아(그리스도)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말을 다시 하게 되고, 앞을 보게 되니,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올바른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달을 경찰이 혼을 내고 내쫓았더니, 그 경찰이 조직폭력배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귀신이 들려 눈도 멀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신 일을 두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26)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말의 논리적인 맹점(盲點)을 지적하십니다. "만약에 내전 중에 있어서 국력이 말할 수 없이 약해진 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십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이기심만을 추구한다면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 한 가정에서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아내도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고, 자녀들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집안이 제대로 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치자. 그러면 사탄의 부하들끼리 싸우는 꼴이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마귀의 제국이 꼴이 무엇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일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수용해서 마귀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 동료 중에서도 귀신을 내어 쫓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론에 바리새인들은 유구무언(有口無言)이었습니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7-28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힘입어'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안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알세불로 대변되는 세속적 가치관' 안에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대변되는 영원한 가치관' 안에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는 '사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능력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탄을 온전히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서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그 우두머리인 사탄을 예수님께서 결박했

음을 의미합니다.

(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그리스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부하'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쪽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그리스도를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모이지 않는 사람 역시 이미 예수님을 해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든지, 반대하는 삶을 살든지입니다. 물론 그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남습니다.

성령 거역 죄(31-37)

31-37절에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3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를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거나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이라고 번역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 사이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착각도 있을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기에 용서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믿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다양한 부르심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순간까지 거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은 '인자(성자 예수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듯이, 혹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면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33)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좋은 나무에서는 언제나 좋은 열매가 열리고, 좋지 않은 나무에서는 좋지 않은 열매가 열리든지, 아예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이 좋지 못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35)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은 사탄의 상징이었고,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는 치유 이적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속이 그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취중진담(醉中眞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있는 동안에 진실을 말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에 두고 있는 말, 생각하고 있는 말들은 나오기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면 그 영향 아래에서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운운하는 것은 독사(뱀)로 대변되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바른 언어, 절제된 언어,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새롭게 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엡 4:25)" 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성자 하나님을 조롱하고 외면했습니다.

곧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에서는 물론 오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을 힘입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바알세불로 대변되는 세속적 욕망을 힘입고 살아,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물거품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한순간이라도 바알세불을 힘입으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 주셨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놀랐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그리스도)이신 것은 언제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2.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고 살지 않으면, '바알세불(세속적 가치관)'을 힘입고 살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더욱 하나님을 힘입어야 할 삶의 영역은 어떤 부분입니까?

3. 예수님은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셨습니다. 당신의 언어생활에서 바꾸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4.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24

요나의 표적 밖에는

마태복음 12:38-50

38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
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
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
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
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41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
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
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
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
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 이에 이르되 내가 나
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
었거늘 45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
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46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
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
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
이다 하니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표적(38-45)

(38-45)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전체가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 간의 대립적 논쟁을 담고 있기에 본문에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온'이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징조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님은 앞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말 못 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하셨으며,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셨고, 귀신들린 사람을 치유하였음에도 이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함이 아닌 그 표적을 보고 다른 공격거리를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생활규칙과 정결 의식법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끼리 한 당파를 이루어 성경과 전승을 해석하는 기득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기득권을 주님께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에게 "성경에 근거하여 당신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대의 주장을 확증하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앞서 메시아라 주장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메시아인 줄 알고 신봉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눈멀고 귀신들려 말 못 하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이 사건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듣는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으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라고 유혹했습니다. 메시아인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증명하는 자체가 곧 거짓과 불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으로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이후 무덤에 머무실 3일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는 스바 여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구스 땅,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귀에 지혜를 들려줌에도 감동받지 않는 세대를 향해 강한 정죄를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표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곧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표적을 요구하는 그 본연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으려는 강력한 불신에 기초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싶은 악함에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표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바르게 설 것을 믿고(잠 19:21),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잠 16:9).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앗수르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남방여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 듣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큰 것, 더 확실한 것을 요구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상 요나보다, 남방여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력하게 거부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마치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와 사는 것처럼 황폐한 상황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아무리 집을 청소하고 수리해도, 외형적 율법을 준수하고 제의적 정결함을 강조하여도, 성령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 우리 심령에 자리하면 더욱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집으로 비유된 사람, 그는 원래 있던 귀신이 나가며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비다'로 번역된 말은 일상적인 헬라어 낱말이 아니라, '여가가 있다'는 의미의 분사로 업무에 매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가하여 참여하지도, 응답하지도, 책임의 무거운 짐을 지지도 않는 여유의 상태, 그러나 그 상태는 아무리 사람이 청소하고 수리하여도 참 주인이신 주님께 매이지 않으면 악한 귀신 일곱에게 점령당하여 그 형편이 심하게 변질되는 것과 같습니다. 외형적 종교행위를 꾸준히 하였다 하더라도 영적인 한가로움에 젖어들게 되면 우리의 심령 역시 악한 귀신에게 점령당한 상태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46-50)

(46-50)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46절부터는 참 가족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단순히 말로 하는 논쟁이었다기 보다는 그 내면에 큰 충돌의 위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종교적 권력을 지닌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항상 군중들과 접촉함으로 예수님에게 가해지는 압박과 사회적 관심에 불안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을 미쳤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말에 주님은 누가 가족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48절입니다.

(48)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예수님에게는 새로운 영적 가족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함으로 인해 늘 표적을 구하여 악한 귀신 일곱에게 점령당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적 가족의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과 거짓이 혼란스러운 이때, 사람들은 표적에 따라 움직이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가정은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규정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덕적인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실했던 큰아들도,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도 모두 품으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향해 가슴 아파하시며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할 때,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은 떠나고 오직 주님이 주인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탕진하고 허비했던 모든 것들을 향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참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우리가 혹은 그저 빈 집을 고치고 수리하는 정도의 신앙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의에 갇혀 탕진하고 소비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는 이미 황폐하게 변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차갑게 굳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찢긴 것을 꿰매고, 구부러진 것을 펴며, 높아진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표적을 구했습니까? 내가 구하는 표적(응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했던 표적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봅시다.

2.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요나와 남방여왕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영적인 한가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매여야 할 곳은 어디인지 기도하며 묵상해봅시다.

4.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하고 실천하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묵상한 날 : . . .

25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마태복음 13:1-23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 큰 무리가 그에게
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
이 와서 먹어버렸고 5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
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
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
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
까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
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
함이니라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
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

음으로 복이 있도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8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20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2)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많은 발자국이 바닷가 앞 부드러운 지대에 도장을 찍어댑니다. 크기나 모양이 다른 각각의 발자취들이 서로를 덮고 뭉그러뜨리며 '큰 무리'의 발자국이 됩니다. 옆 사람 말도 듣지 못하게 하는 웅성거림 속에 귀가 멍해지고, 이미 밀리고 저리 밀리는 동안 공간에 대한 감각과 균형 감각이 무뎌지며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 질서 좀 지킵시다." 점잖은 충고는 이내 몸이 부대낀다는 짜증 소리와 가족을 찾는 비명과 울음소리에 밀려납니다. 자리 잡기 위해 버티기도 하고 밀기도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 앞서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간식거리를 담았던 봇짐을 끌어안은 채로 서로에게 몸을 맡기며 무리의 일부가 됩니다. 밟히지 않기 위해 발만 보며 이끌리던 중 행렬이 서자 까치발로 머리를 높이 들어 두리번거립니다. 내가 어디 있는 것인지. 누구를 보려고 했던 것인지. 모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또한 쉽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감시하듯 지켜보며 정죄하고 비판합니다(마12:2). 회당에 들어가셔도 고발하기 위한 사람들의 질문은 이어졌고, 지혜로운 답으로 논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자신을 죽이기 위해 공모하고 귀신의 앞잡이로 치부한 종교지도자들의 잔인함과 비열함을 뚫고 가야 했습니다(마12:10~14, 24). 사람들은 그 속도 모르고 병을 고쳐달라고 따라오고, 주님은 그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마12:15). '그 날'(1절), 참 힘들고 지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U'자 모양으로 된 해변으로 가서 배에 오르십니다. 땅을 딛고 서 있던 그들의 마음은 결핍과 경쟁으로 흔들리고 있던 반면,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 올라가 배에 앉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치열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뒤엉켜 자신을 바라보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3-9)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농사 이야기나 듣기 위해 집 떠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씨를 흩뿌려 농사를 지었기에, 씨 뿌리는 농부의 뒷모습이나, 떨어지는 씨앗들이나, 길가에 떨어지는 것을 먹는 새들이나, 말라버리거나 덜 자란 식물의 모습이나, 가끔 잘 자라 결실을 보는 것은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하루를 바라던 무리에게 뻔한 일상의 이야기를 주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9절)'고 하십니다.

실망한 이들이 하나둘씩 뒤돌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영화가 끝났는데도 특별한 영상이 나올지 싶어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몇 명이 남았지만,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터덜터덜 발을 질질 끌며 떠납니다. 바닷가에 찍혔던 무리의 거대한 발자국은 예수와는 반대 방향을 향해 찍힌 수많은 개인의 발자국으로 바뀝니다. 떠난 이의 발자취는 남은 이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조심스레 예수께 나아와 묻습니다.

(10-16)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은 종교지도자들과 대결하셨습니다. 그들은 격렬하게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예수를 이길 수 없었고, 폭력적 악의는 모인 무리의 눈치를 보다 분노와 뒷말로 배출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예수와 다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무리는 어느 편인지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주변을 맴돌 뿐입니다. 천국으로의 초대를 받지만, 여전히 자기 고민을 해결하기만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지켜주는 것 같았지만,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검증하십니다. 떠난 자는 무리고 남은 자는 10절과 같이 제자라 불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 자이며, 듣는 자는 질문하는 자입니다(9-10절). 이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10절)." 왜 그 상황

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지쳐만 가는데, 예배와 기도회와 묵상을 통해 받는 말씀은 이리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인지. 상황은 악화하고, 잘 해보려는 노력은 거듭 실패로 돌아가는데, 당장 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뻔한 일상의 이야기만 주시니 체념이 분노로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문해야 한다'고 돌아서려는 우리 어깨를 붙잡습니다. 주님께서는 질문하는 것이 바로 눈을 뜨는 것이고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질문이 없는 자는 그들이 들었던 말씀조차 잊게 될 것입니다(12절). 질문하기 위해선 예수를 봐야 하기에 그분을 찾아야 하고, 돌아가려는 흐름에 저항해야 하며,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심을 담아, 말을 꺼내야 합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예수와의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다다를 수 있는 진리. 질문이라는 두 글자는 마치 눈꺼풀이 열리는 것처럼 쉽고 뻔할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진실을 볼 때까지 눈을 감지 말아야 하고 답을 들을 때까지 귀를 닫지 말아야 합니다.

(17-2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질문이 허공을 머물다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기에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의인이라 부르기엔 부끄러움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17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18절) 끝까지 남아서 질문하는 이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악한 시대와 세력의 훼방과 지배 가운데 말씀이 삼켜진다 해도, 기쁨으로 받았지만 적용하지 않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 거리가 된다 해도, 살길이 막막하다는 염려와 두 손 가득 돈을 움켜쥐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지켜보려는 선의가 밀려나 찜찜한 죄책감 거리로 말라비틀어져도, 하나님 나라의 농부이자 씨앗인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기 존재를 우리 삶에 던지며 반드시 결실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 이것은 주님의 결심과 각오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소망입니다.

제압하고 통제하며 굴복시키던 로마의 통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힘을 포기하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당하고 밀려나며 흔들거리는 배 위에 앉으셨던 그 날에도, 제자들과 함께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던지시며 우리 삶에 자신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께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구원과 회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로 인해 거절당하고 사라지며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질문으로 뿌리내리고 적용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떠나도, 우리는 남아 주님께 질문할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 발자취를 남기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힘의 시대 속에서 더 큰 힘이 아닌 말씀의 씨앗을 찾아 나옵니다.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무리 속에서 뻔한 이야기를 붙잡고 씨름하며 질문하는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진실을 볼 때까지 눈을 감지 말고, 답을 들을 때까지 귀를 닫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함께해 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특별한 깨달음이나 기적만을 구하며 말씀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돌아봅시다.

2.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한 성경 말씀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적어봅시다. 시간을 내서 말씀을 살핍시다.

3. 편안한 상태에서만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편견이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오늘 내 치열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배우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방법이 필요할지 고민해 봅시다.

4. 우리 마음 밭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봅시다.

5. 거절당하고 사라지며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말씀을 뿌리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글을 적어봅시다.

묵상한 날 : . . .

26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마태복음 13:24-43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
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
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
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
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
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
으니라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
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
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

여 주소서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 큰 이해를 가져왔으며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기간이 되면 힌트나 예상문제를 찍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되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는 혹은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그마저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순수하게 받아드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비유가 마치 시험문제 힌트나 예상문제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닫힌 자들에게는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비유를 힌트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24-30)

(24-30)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13장 앞부분에 나온 것처럼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나 더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한 사람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렸습니다. 여기서 '씨'는 '스페르마'라는 단어인데 '씨'의 의미와 더불어 '후손'으로도 사용됩니다. 고로 이 '씨'라는 단어를 비유로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자녀'의 의미를 같이 떠올리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13장 36절부터 43절에 그 해석이 나오기에 그 내용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37-38)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고로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며 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밭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는 식물인데 일명 '독보리'라고 부릅니다. 이 독보리가 처음 자라날 때 일반인은 일반 곡식과 독보리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면 모양이 달라져서 추수 때가 되면 구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독보리는 곡식열매 자체에 독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 열매에 균이 기생하기 쉽고 균이 기생한 열매를 먹게 되면 구토, 설사, 현기증이 나기도 했고 또한 독보리가 자라면서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에 고대 근동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의 밭에 몰래 가서 이 씨를 뿌리곤 했습니다. 마치 싫어하는 사람이 먹는 음식에 몰래 설사약을 섞는 심보 못된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예수님이 씨를 뿌려놓은 밭에 '독보리'를 뿌려놓은 것입니까? 그 원수는 누구입니까?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바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시키는데 선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곧 악한자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는 마귀의 유혹에 현혹된 사람들을 통해 좋은 씨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박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밭을 관리하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그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답은 이와 같습니다. 29-30절입니다.

(29-30)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함께 자라게 두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자라게 두라'는 주인의 말에 우리는 발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불신자들의 핍박과 괴롭힘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시면서 이런 고통당하는 저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하십니까? 당장이라도 저 사람을 벌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가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합니다.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인바 되자 참감람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가라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들일 곡식이 된 것은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기다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가라지였던 둘째 아들이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기다림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가라지를 저주하고 뽑아 달라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면 맏아들에 머무를 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저 가라지가 변하여 곡식이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 심판 날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은 결국 뽑혀 풀무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까지는 기다림과 인내로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림과 인내로 견디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위에 가라지처럼 보

이는 사람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곡식으로 변화시키시길 기다리십시다. 도저히 변할 기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인내 하십시다. 함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정해진 때에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31-35)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사용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31-32)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식물의 씨는 참 작습니다. 열매와는 달리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길에 버려져 있어도 누구하나 잘 줍지도 않고 발에 밟히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래 한 알인지 씨앗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씨앗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배경과 학벌과 인물됨은 형편없어 보였

을지도 모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 지도자들 또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유대 지도자 공동체는 사라지고 로마도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통해 복음으로 전해져 초대교회 공동체에 심겼고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과 공동체와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꿈틀대며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33)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곰팡이를 곡류에 번식시켜 만든 발효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누룩 넣은 반죽을 새 반죽과 함께 섞어서 반죽하여 반죽을 발효시켜 구워서 빵으로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반죽과 비교해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양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할 정도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가루 서 말이라고 되어 있는 양은 약 50Kg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이 많은 양의 반죽덩어리도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변화되어 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가운데 심기우면 그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세계와의 관계를 모조리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생각도 변화시키며 그 결과 우리 삶의 취미, 선택, 일하는 태도까지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적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의 촉매가 되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 것 없어 보이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것이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고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따르던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겨자씨와 누룩은 우리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주위에 확장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겨자씨같이 작다 느껴지고 누룩같이 존재감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잘 것 없어도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거나 무능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실히 키워나가면 그 나라는 나를 넘어 반드시 주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고 가루 서 말도 부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위에 믿는 분이 많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내가 영향력을 미칠만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다고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 대하여 관계를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세 비유를 종합해볼 때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가 가득하여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를 겨자씨 한 알 같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곳이며 보이지 않는 누룩같이 취급하는 곳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으로 살면서도 배은망덕하게 죄의 열매를 맺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 나라를 따르는 우리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정,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아무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악한 일을 행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자라고 더 좋은 곳에 자리 잡는 모습을 보고 울화통이 터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가라지는 뽑혀 불에 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나라에서 해같이 밝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습게 여기던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

라와 그 백성은 세상 마지막 날 모든 나라들이 무너질 그때에 영원한 나라로 우뚝 세워지게 될 것이며 그들의 눈에 띄지도 않던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주위 가라지로 인해 마음상해 하십니까? 기다리십시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도 초라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임에 감사하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화려하고 악하며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초라하고 영향력 없어 보이며 세상의 기세에 짓눌려 지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라지에게 양분을 빼앗겨 울기도 하고 스스로를 겨자씨와 누룩같이 여기며 낮은 자존감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고 세상 권세와 인기와 성공이 다 사라질지라도 결국 그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때에 굳게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게 하셨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 백성을 분리하사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아픔과 고통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2.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3.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는지 묵상해 봅시다.

4. 누룩이 가루 서 말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갔는지 또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묵상해 봅시다.

묵상한 날 : . . .

27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44-58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7 또 천
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
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
을 갈라 내어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이
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
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54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
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주신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뿌리는 자 비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다섯 번째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 번째 값진 진주 비유, 일곱 번째 그물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44)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밭에는 악한 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자녀들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자녀들을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다가 세상 끝 날에 악한 자의 자녀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신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

니다. 오직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감추어둔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어떤 식으로든지 구입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행이 없고 전쟁이 잦고 치안이 불안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금고 중 하나는 땅 속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느 누가 보화를 밭에 안전하게 숨겨두었는데 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찾아가지 않았다면 보화가 묻힌 밭의 주인에게 그 보화의 소유권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사람이 밭주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그 밭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구입하여 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듯이 돈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람의 노력과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천국 비유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사람이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보화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45-46)

(45-46)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섯 번째 천국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는 내용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비유와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밭을 구입하는 사람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반면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찾으러 다닌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상인은 영적 갈급함과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구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감추어진 보화나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찾은 것과 같습니다. 보화나 진주를 발견해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화와 진주보다 더 값진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47-50)

(47-50)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에 관한 일곱 번째 비유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몬다'는 것은 두 척의 배가 촘촘한 저인망 그물을 양쪽으로 몰아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물고기로 번역된 단어는 바다 생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인망 그물로 잡으면 물고기 외에도 다양한 바다생물들이 잡힙니다. 갑각류도 잡힐 수 있고 연체류도 잡힐 수 있고 어부들이 싫어하는 불가사리도 잡힐 수 있습니다. 천국은 다양한 종의 바다생물들을 잡는 그물이라고 하지만 강조점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물을 끌어내어 다양한 종의 바다생물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분류한 뒤 나쁜 것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버린다는 것은 두 번째 천국 비유인 가라지 비유와 비슷합니다. 어부에 의해 선택받은 바다생물은 그릇에 담기고 가치 없는 바다생물은 내버림을 당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어부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류하듯이 천사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51-52)

(51-52)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는 천국의 비유 일곱 가지를 깨달았는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비유에 정통한 사람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옛 것'은 구약의 가르침이며 '새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둘 모두 필요합니다. 곳간은 보물창고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창고에 있어야 할 정도로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보물창고의 주인처럼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옛 것인 율법의 말씀과 적절한 새 것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53-54)

(53-54)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후 그 곳을 떠나셨는데 그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주 거점지역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고향은 예수님께서 유아기부터 장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자랐던 나사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평소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사람이 놀랐습니다. 이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지혜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는데 그 놀라움은 의심이 가득 찬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에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그 목수라고 말할 정도로 목수는 단 한 사람뿐이었거나 주민들이 다 알 정도로 잘 알려진 목수였습니다. 목수로 번역된 원어의 뜻에는 장인(匠人)이나 집을 짓는 사람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진흙 집을 짓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주민들이 집을 수리할 때마다 그 목수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지 않은 유명 인사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어머니의 이름과 형제 4명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나사렛에서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그 목수의 직업을 이어받은 아들들을 알고 있었고 그 집의 맏아들 예수를 아는데 도무지 그의 지혜와 능력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57-58)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색안경을 쓰고 보면 결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목수의 아들이라는 틀에서 보면 그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와 능력이 무가치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나사렛 주민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편견을 깨트리기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과거에 인식된 틀에 갇혀서 사람을 보는 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없습니다. 새 해에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지난 해에 만났던 교우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믿지 않음으로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 깊이 알고 더 넓게 인지하고 믿게 되면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 새 해에는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알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보다 더 귀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보다 더 귀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바다라는 세상 속에 있는 생물처럼 살다가 언젠가 저인망 그물에 끌려 그릇에 담길지 내버려질지가 결정될 날이 있음을 잊지 않으며 주님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천국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1. 감추인 보화와 아주 귀한 진주이신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주님으로 모시기 위해) 나의 어떤 것 또는 어디까지 값을 치를 수(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2. 천국 비유 중 그물 비유의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3.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무슨 의미입니까?

4.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의 답과 관련해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묵상한 날 : . . .

28

남은조각을 열 두 바구니에

마태복음 14:1-21

1 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3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 이는 요
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
이라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
을 두려워하더니 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
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8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
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9 왕이 근
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12 요한의 제자들
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3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
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
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8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2)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세례자 요한의 죽음(1-12)

마태복음 11-15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12절이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4)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신약성경에는 4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을 때 만난 사람이 헤롯대왕(헤롯1세)입니다. 그 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게 한 헤롯은 헤롯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대부분 이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둔 헤롯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1세'입니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은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심문을 당할 때, 아그립바왕이 함께 있었는데, 그가 '헤롯 아그립바2세'입니다. 그는 헤롯 아그립바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이복동생 중에 헤롯 빌립1세가 있었고,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도 이혼하고, 동생 헤롯 빌립1세도 이혼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세례자 요한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복해서 지적하자, 투옥시켜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에게는 세례자 요한이 눈에 가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습니다.

특정 대상에 강박적으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칭

하여 '포비아phobia'라고 합니다. 화학제품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갖는 것을 '화학 포비아'라고 하고, 먹거리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증세를 '먹거리 포비아'라고 합니다. '포비아'가 본문의 '두려워하다'에서 온 말입니다.

헤롯은 사람들에게 '포비아'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아버지 헤롯대왕처럼 자기 자리에 집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잘못 처형했다가 민중 봉기라도 일어나면, 로마제국에 신임을 잃고, 폐위를 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은 어이없는 말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6-7)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의 생일 축하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헤로디아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인데,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춤에 홀린 헤롯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딸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시욕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8-11)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롯의 말은 가족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딸이 귀여운 소원을 말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요구는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의 생일에는 신하들, 장군들, 지방 귀족들, 부자들 등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과시욕으로 말미암아 세례자 요한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렀지만,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슬픈 장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후에 그 사실을 예수님께로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끝났음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난 후, 헤롯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1-2) 그 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의 문자적인 뜻은 '어떤 지역의 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헤롯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3부분으로 나뉘었고, 그중에 한 부분을 헤롯(안티파스)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헤롯은 세례자 요한이 살아있을 때만 그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죽었을 때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세례자 요한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헤롯은 권력에의 집착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13-21)

13-21절은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13-14)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자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빈 들로 향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빈 들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빈 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는 '측은히 여기다'라는 의미인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아버지가 그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갈 때 가졌던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여러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필요를 구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 육체(몸)를 위한 필요를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무조건 배척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 자체'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만이 소중하고 우리의 육체는 무가치하기만 하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주님의기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거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치유를 비롯하여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것을 잘 수용하셔야 믿음이 성숙해가게 됩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15)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이기 때문에 잠시 휴식기간을 가져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고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저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녁이 되니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래 사람이 그러하지만, 저녁(밤)이 되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낮만 있지 않고 저녁(밤)도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떠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너희가'입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제자인 너희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7)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아주 적거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할 때, 조금 있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조릅니다. "아빠, 엄마 오늘 저녁은 우리 외식해요?" 그때 부모가 그냥 "돈 없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집에 돈이라고는 100원짜리 2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돈이 없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이 적다는 것을 표현할 때도, "월급을 쥐꼬리만큼 받는다"라고 합니다. 각종 벌레의 꼬리는 쥐꼬리보다 훨씬 작지만, '쥐꼬리'는 '작음'의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비관적인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18-19)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잔디에 앉히게 하셨습니다. '앉다'는 '비스듬히 기대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만찬을 가질 때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배급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만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에 성찬을 하실 때에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을 주신 사건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20-21)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떼어 주신 빵과 물고기를 갖다 나르느라 제자들은 몹시도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눈 음식이 빈 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부르도록 먹고서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모두 합하면 1만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아주 배가 부르도록 충분히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안티파스)이 연 잔치도 나오고, 예수님

께서 여신 만찬도 나옵니다. 헤롯이 연 것이 귀족들을 위한 잔치, 욕망과 과시의 잔치라면, 예수님께서 여신 것은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만찬, 생명과 섬김의 만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만찬은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베들레헴, 낮은 구유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권력에 집착했고, 잔치를 열어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다가,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일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 아이들 외에 5,000명,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만찬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나누어 주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헤롯(안티파스)는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딸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가, 세례자 요한을 목 베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다가 낭패하신 일은 없습니까? 있다면, 그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2. 남자만 5,000명이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생명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은 무엇입니까?

3. 헤롯이 연 잔치와 주님께서 여신 만찬 중 어느 곳에 초대를 받고 싶습니까? 주님의 만찬에 초대받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욕망과 과시의 삶이 아니라 생명과 섬김의 삶을 살며,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29

믿음이 작은 자여

마태복음 14:22-36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
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 배가 이미 육지에
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
라 25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 제자
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
라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4)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34 그들이 건너
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
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22-33)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굶주려 있는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보이신 행적입니다.

(22)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먹이신 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무리들을 돌려 보내셨습니다. 재촉하다는 '필요로 하다', '억지로 시키다'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게 하신 이유를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15절이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요 6:14-15)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가 한 순간에 폭도로 변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무리들을 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지상 사역 동안에 육체적인 피로가 쌓여가는 순간에도, 권력의 유혹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교만해지려는 유혹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24-26)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는데, 밤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6시입니다. 가장 피곤하고 어두운 시간에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공포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7)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자신임을 밝히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제자들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는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28)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면 자신을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령을 해달라고 합니다. 베드로 역시 두려움과 의구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신지 분별하기 위해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자신에게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29-31)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는 바다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했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껴 바다로 빠져가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간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움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자 마자 그대로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혹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

보지 않고, 절망하며 상황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안정이 찾아오자 그들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32-33)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 이적들을 체험하고, 직전에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을 눈 앞에서 보았어도 바다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34절에서 36절은 지속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며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립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34-36)

(34-36)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으로 건너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루 몰려와 나음을 받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병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나음을 받았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동네에 오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하여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져 나와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과 병들어 있는 모든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삶에서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권력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했는데,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우리 마음과 몸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강건하여 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후에 급히 자리를 옮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묵상하고 실천해 봅시다.

3.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볼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4.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모든 사람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행위들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묵상한 날 : . . .

30

하나님의 말씀 vs 장로들의 구전율법

마태복음 15:1-20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
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
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
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
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
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
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
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10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 입
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2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바
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3 예수께서 대답
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
힐 것이니 14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
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5 베드
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 예수께

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1-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들의 전통(1-10)

마태복음 14장의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는 '장로들의 전통(구전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산헤드린 회원들이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랍비'라고 불리우는 서기관들입니다.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2절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 시대부터 장로들을 통해 구전되어 온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에 점점 해석이 덧붙여져서 신약 시대에는 엄청난 양의 불문율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성문화된 모세 율법과 해석이 다른 경우에도 장로들의 전통을 오히려 더 권위있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씻는 물의 양과 질, 물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손의 자세 등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매뉴얼이 장로들의 전통에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관습을 무시하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공격 거리를 제공해 준 겁니다.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들의 공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너희들이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였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썼을지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겁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들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지만,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계명을 범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다면 거기서 나는 소출 중의 일부는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부모님께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표현하는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되기 때문에 그 소출로는 부모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누군가가 '고르반'이라고 무언가를 성전에 바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장로들이 만든 구전 율법으로 그들에게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의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선언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지킬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밭에서 나온 소산을 부모나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전부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으로 생겨난 고르반 제도로

인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고전13:13)'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마19:1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먼저 좇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상황 속에 전통이나 율법을 대입시켜 스스로 합리화하며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당신의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9)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외식'은 속의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

하여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교 즉 바리새 종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의식과 엄격한 규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성결(11-20)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구전 율법에 온 정신을 쏟는 외적인 정결보다 마음의 성결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기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18-20)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말들이 나오느냐도 참 중요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보통 사람이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며칠 먹으면 금방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아플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 아픈 마음으로부터 계속해서 안좋은 생각, 안좋은 말들과 같이 안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 온갖 죄악들이 나올 수 있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건강을 늘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 건강을 잘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 자기희생의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식사 전에 손 씻어야 한다는 유치원 식사 예절에나 나올법한 구전된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여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놓

쳐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은 잊어버린채 '장로들의 구전율법'을 만들고 구전율법이 우상이 되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갈 때는 없는지 참 두렵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 자기희생의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구전율법'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그들은 '장로들의 구전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려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범하게 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3. '고르반' 제도와 같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세상에서 악하게 이용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4. '마음의 성결'을 잘 지키기 위해 이제 당신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 . .

31

주여,
주여, 주여

마태복음 15:21-39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30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31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

하겠노라 33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 떡 일곱 개와 그 생선
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37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39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
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5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장로들의 전통(구전 율법)'에 대해 질문하며 시작합니다(마15:1-2).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적인 정결보다 마음의 성결이 중요하다고 답하십니다. 11절의 답변 이후에 어떤 반응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질문과 답변 이후 등장하는 침묵. 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무리 앞에서 예수님의 치부를 드러내 끌어 내리고 싶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 나아와 답변의 본의가 무엇인지 질문했고, 그중 베드로는 15절에서 재차 설명을 요청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민하는 그들을 무지하다 비난하지 않으시고 거듭 말씀의 본의를 설명해 주십니다.

가나안 여자의 고백과 믿음(21-28)

(21-23)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성경에서 바알신을 숭배하거나 권력과 부요함을 붙잡는 교만으로 인해 여러 번 비판 받았던 도시입니다(사 23:1-17; 렘25:22; 27:3-7; 겔26:2-9; 욜3:4-8; 슥9:2-4). 그곳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예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23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던(마7:7-8) 주님께서 그녀 비명에는 고개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를 보내달라고 청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으니, 이것은 의도적인 외면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리 질렀지만 사실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경쟁의식, 이 정도 외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자기열심, 들리지 않는 것 같다는 조바심, 일부러 외면하신다는 것을 알고 느낀 당혹감, 어떻게든 듣게 만들겠다는 오기, 누구든 이 상황을 조율해서 예수의 답을 듣게 해주길 바라는 절박함,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

미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결국 가나안 여인을 대하던 유대인들의 시선과 태도가 떠올랐고, 전에 예수께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10:5-6)'는 지침을 주신 적 있다는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듣고서 절망과 배신감과 분노로 바뀝니다. "귀신 들린 딸이 있다더니, 자기도 귀신 들렸나 보네." 흘렀던 눈물로 벌겋게 변한 눈가 속에는 소망을 잃은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다 쉬어버린 목에서 나오는 꺽꺽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자기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문구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전승을 따른 고백입니다(마1:1; 9:27). 사람들이 그녀에게 저렇게 이야기한 맹인들을 예수가 치유했음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녀는 자신도 저 고백을 하면 딸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은 유대인의 고백이지, 가나안 사람의 고백이 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녀 고백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면 주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신 후에 그들에게 오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셔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침묵하시는 주님이 문제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못 부른 자신을

내쫓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말씀하며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예수 앞에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자기고백을 시작합니다.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이것이 그녀가 예수께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 말고, 화려한 미사여구 지우고, 초라하지만 정직한 고백을 드리며 굴복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비참함을 넘어설 방법은 오직 저 사람 뿐임을 알고 붙잡았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자기고백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26-28)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는 그녀의 고백을 검증하십니다. “나를 주라 부르는데, 그 호칭은 왕이나 황제에게 사용하는 것이다. 넌 정말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느냐. 유대인들은 너희를 개라고 부른다 (삼상 17:43; 시 22:16; 잠 26:11). 나도 너를 개라 부른다 해

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예, 주님. 마음대로 부르셔도 됩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 딸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종은 모든 판단과 결정을 주인에게 맡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시니 앞으로 판단과 결정과 열매를 맡기고 계속 무릎 꿇겠습니다." 그 때. '주'라는 짧은 고백이 22절과 25절과 27절에서 반복되며 검증을 마친 바로 그 때. 예수님은 그녀 믿음을 공개적으로 높이 들어 알리셨고 딸이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사천 명을 먹이심(29-39)

(29)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정을 회복시킨 후,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의 도시 두로와 시돈을 향하셔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제자들마저 '낫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보내 달라' 는 요청을 했던(23절), 한 명의 가나안 여인 가정에 회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들어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 한 명' 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먹다 버린 부스러기를 떨어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비명을 듣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으며, 침묵으로 기다리셨고, 힌트를 주시고, 진솔한 고백을 검증하시며 답을 주셨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녀는 쉴 만한 물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 혼자만의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일곱 개의 빵과 물고기 두어 마리로 기적을 베푸셨던 곳은 데가볼리, 바로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30-38)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굶겨 보내지 않으시는 주님. 사람들이 불가능이라 말해도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를 나누시는 주님. 유대인에게 오병이어(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기적을 베풀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의 이방인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으로 동일한 잔치를 여신 주님. 그분이 함께 계시니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사천 명이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습니다.

(39)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주님은 다시 배에 오르사 다음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그렇게 찾고, 먹이고, 보내시는 주님의 발걸음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 질문하십니다. 고백하고 검증받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진실한 고백들이 모이는 바로 그때, 우리에게도 쉴 만한 물가와 칠병이어의 만찬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삶에 마음이 상해 갑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 생각과 열심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선의를 믿어가겠다고 다시 한 번 결단합니다. 참과 거짓이 혼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고백이 진정한 자기고백인지 검증해 주시고, 초라하지만 진실한 고백을 통해 하늘 만찬의 자리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회복된 딸과 다 먹고도 남은 일곱 개의 바구니처럼,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회복과 풍요로움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적 있거나, 마주하는 중인지 생각해봅시다. 그때의 우리 마음이 어땠는지 솔직히 적어 봅시다.

2.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할 것인지 '자기고백'을 적어봅시다.

3. 하루를 지내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4. 제자들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편견과 오병이어(마14:13-21)를 잊고 떡 일곱 개와 생선 두어 마리 밖에 없다고 말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음을 기억합시다. 혹시 우리의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것 또한 솔직히 예수님에게 표현했을 때, 기적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솔직히 마음과 생각을 고백합시다.

5.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찾아가 돌봐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생각해 봅시다.